

2023
충북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결과 자료집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목차

1

2023 충북예술인파견지원 - 예술로

사업소개	6
예술로 참여 주체 역할	6
예술로 현황	7

2

예술로 협업활동

단양디자인발전소	11
청주 YWCA	24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	34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43
하늘농부	50
내포긴들영농협동조합	58
이안테라스	68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	79

예술로 소개

예술인파견지원 - 예술로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기업, 기관, 마을 등 사회와 협업하여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적 기획, 협업구조 제시를 통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분에 접목되어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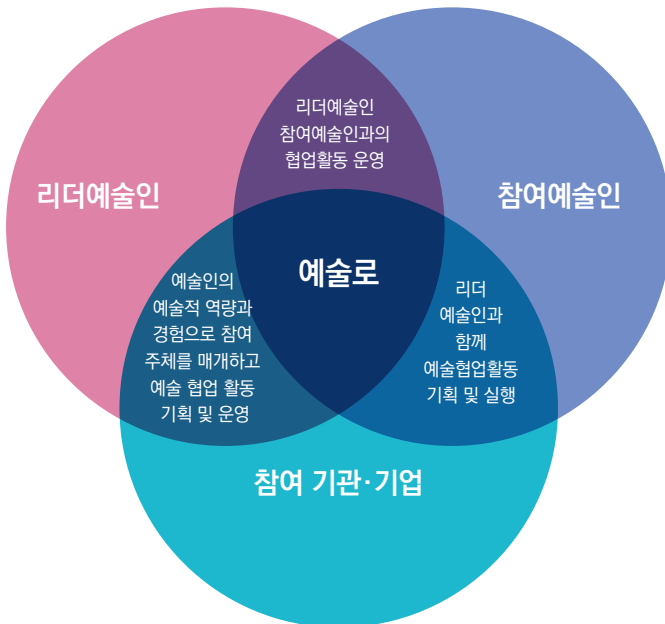
충북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는 협업사업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업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및 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기관-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을 매칭 및 협업활동 추진을 지원합니다.

예술로 참여 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참여기관	3	5	7	8
리더예술인	3	5	7	8
참여예술인	12	20	28	31
합 계	18	30	42	47

예술로 참여 주체 역할



구 분	역 할	지원규모	선정규모
충북 문화재단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예술인활동비 지원 및 활동 관리 등 예술협업활동 지원 - 예술인활동비 과세신고,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사업 운영 현황 공유		
리더 예술인	- 기업·기관·마을의 이슈진단 및 예술적 개입 방향 설계, 프로젝트 기획 - 기업·기관·마을, 참여예술인과의 협업활동진행 및 공유 -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예술인 활동보고서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월 활동비 140만원 지원(6개월)	8명
참여 예술인	- 기업·기관·마을, 리더 예술인과 협업활동 진행 및 공유 -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월 활동비 120만원 지원(6개월)	31명
참여기관	- 예술협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환경(공간, 재료비 등) 및 OJT 제공 - 리더 예술인, 참여 예술인 활동 협력 - 리더 예술인, 참여 예술인 활동보고서 검토	예술인 파견 (6개월)	8개 기관

예술로 현황

추진절차

2 ~ 3월	3 ~ 4월	5 ~ 10월	11 ~ 12월	12월 ~ 24. 1월
지역사업 주관처 선정	접수·심의 및 매칭	협업활동 실행	성과공유 간담회 및 홍보영상 제작	정산 및 실적보고
충북권 주관처 선정	기관 대상 공모 및 서류 심의	오리엔테이션		
선정기관 OT 참석	예술인 대상 서류 및 인터뷰 심의	협업사업 수행		
세부추진 계획	기관-리더예술인 매칭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관리	성과공유 간담회 추진	회계 감사 및 정산
		예술인 간담회 및 모니터링		주요성과보고 제출
		홍보영상 제작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단,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사업대상지역 거주예술인
필수 (리더, 참여)	• 복지재단 사업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참여자	• 복지재단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수혜자 • 복지재단 <2023년 예술로 협업/기획사업> 수혜자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참고 기업·기관	• 종교기관 및 정치적 이익단체**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 타 예술 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고유업무 위탁(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기관

*예술활동증명 자격 충족 및 참여제한 대상자 확인은 복지재단에 요청하여 진행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① 공모 및 접수

◆공모기간

- 공모기간 : 2023. 4. 10.(월) ~ 4. 17.(월) 18:00까지
- 신청서 다운로드 :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 접수

◆서류 및 인터뷰 심의

- 심의일정 : 2023. 4. 26.(수)
- 추진장소 : 재단 5층 대회의실
- 추진내용 : 신청 예술인 및 기관 서류 심의 및 예술인 대상 인터뷰 심의

◆결과발표

- 최종발표 : 2023. 4. 27.(목)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 2023. 5. 4.(목)
- 선정 : 리더예술인 8인, 참여예술인 32인, 참여기관 8곳

②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2023. 5. 12.(금) 14:00 / 재단 5층 대회의실
- ◆추진내용 : 사업자침안내, 기관-예술인 매칭, 약정서 체결, 성희롱예방교육 등

매칭결과

기 관 명	예 술 인	장 르	지 역
단양디자인발전소	조 송 주(리더)	미술	청주
	김 길 은	미술	청주
	임 예 지	음악	제천
	한 을 순	미술	청주
	전 희 선	음악	제천
내포긴들영농조합법인	김 상 현(리더)	음악	충주
	김 미 아	음악	충주
	이 은 주	음악	충주
	장 미 경	음악	충주
	김 준 아	음악	증평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	서 일 도(리더)	국악	청주
	박 춘 성	미술	청주
	김 현 서	문학	청주
	정 의	미술	청주
	정 근 형	음악	청주
이안테라스	유 용 성(리더)	국악	증평
	이 옥 란	무용	청주
	권 여 진	미술	청주
	한 지 운	미술	진천
	이 재 윤	음악	청주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민 경 준(리더)	미술	청주
	정 지 현	미술	청주
	김 성 재	연극	음성
	최 혜 진	무용	청주
	조 예 은	음악	충주
(사)풀꿈환경재단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박 해 빈(리더)	미술	청주
	한 성 념	음악	청주
	김 윤 섭	미술	청주
	이 재 문	무용	청주
	임 윤 목	미술	청주
(사)청주 YWCA	정 지 영(리더)	무용	충주
	강 효 경	미술	청주
	유 병 하	미술	청주
	노 경 민	미술	청주
	이 창 수(리더)	미술	청주
하늘농부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심 은 지	음악	청주
	추 연 신	미술	청주
	임 남 규	국악	충주
	송 선 영	미술	청주

④ 사업 담당자 현장 모니터링

- ◆기간 : 2023. 5 ~ 10월
- ◆장소 : 각 참여기관
- ◆내용 : 각 그룹별 사업 추진 현장 담당자 현장 모니터링(12회 진행), 리더예술인 간담회(2회 진행)

④ 예술인 활동보고서 검토 및 활동비 지급

- ◆기간 : 2023. 5 ~ 10월 / 5개월 지급
- ◆대상 : 리더예술인 8명, 참여예술인 31명
- ◆내용 : 리더 및 참여예술인 월별 보고서 검토 및 활동비 지급

⑤ 리더예술인 간담회 추진

구 분	1회	2회
일 시	2023. 6. 16.(금) 10:30~13:30	2023. 9. 19.(화) 10:30~13:30
장 소	재단 5층 대회의실	
내 용	그룹별 추진 현황 및 차년도 사업 반영 의견 논의	성과 공유 및 결과 기록 관련 논의



⑥ 성과공유회

- ◆일시 : 2023. 10. 31.
- ◆장소 : 재단 5층 대회의실
- ◆대상 : 리더예술인 8인, 참여예술인 32인, 참여기관 8곳
- ◆내용 : 각 그룹별 협업활동 추진 관련 부스 및 공연, 성과 발표 관련 사진



단양디자인발전소

| 기관소개 |

5년 전 단양에 이주하여 실내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을 창업하여 매력 있는 공간을 창출해오며 차별화된 스페이스 콘텐츠를 창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단양의 지역 소멸 위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며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소개 |



리더예술인
조송주 (미술)



참여예술인
김길은 (미술)



참여예술인
전희선 (음악)



참여예술인
임예지 (음악)



참여예술인
한을순 (미술)

| 협업활동 프로젝트 기획의도 |

협업 주제 1

선주민과 관광객이 조화롭게 접촉하고 교류하기 위한 단양 연구

-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선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도출
- 선주민과 관광객 간의 밀접한 접촉과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선주민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사회와 관광객 간의 이해가 상호 조화로운 방안 도출
- 지역 사회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제공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단양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창업과 노동 시장 지원 등의 노력 발굴 및 확산

협업 주제 2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서의 단양 연구

- '지방 소멸'이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논의 구조 구축
-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意識에 대한 민·관의 공유와 능동적인 참여 및 자발적인 실행 유도
- 선진사례 연구 및 창의적인 인재 유치, 유사사업과의 사업연계 전략 및 방안 도출
- 지방소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장기적인 비전을 갖춘 킬러콘텐츠발굴 및 육성전략 도출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술가와 지역 다양한 계층이 협업하는 '공생공존' 프로그램 운영



협업 방법

단양군과 유사 사례 학습 및 연구 공유

- 마을의 진화로 살펴본 지방도시 회생사례 학습 및 연구 공유

단양군의 핵심콘텐츠연구

- 단양군 캐릭터인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이야기 학습 및 연구 공유
- 단양군의 기념물과 특산품인 수달과 황금쏘가리 이해 및 접목 방향 연 단양의 핵심콘텐츠개발 및 제안
- 단양군 핵심콘텐츠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새로운 캐릭터 개발
-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음원콘텐츠개발

성과물 목표

스토리텔링

- 평강공주, 온달장군 이야기+삼국유사 풍백, 우사, 운사이야기+수달과 황금쏘가리를 접목한 새로운 이야기 창작

시각콘텐츠

- 평강공주, 온달장군, 황금쏘가리, 수달, 평강공주+황금쏘가리, 온달장군+수달을 접목
- 민화 작화

음원콘텐츠

- 스토리텔링에 맞춘 평강공주+온달장군러브스토리를 작곡 및 연주
- 스토리텔링에 맞춘 평강공주+온달장군러브스토리를 선곡 및 연주

| 과정 |

5월

» 우선 올 2023 충북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다소 늦은 출발이다. 5월 12일에 서야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지다 보니 협업 일수를 채우기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다. 매칭 기관은 단양디자인발전소다. 리더 예술인은 저(조송주)이고, 매칭된 참여예술인은 김길은(시각, 드로잉), 임예지(음악, 피아노), 전희선(음악, 바이올린), 한을순(시각, 민화) 선생님이다.

» 나를 비롯한 김길은, 한을순 선생님은 청주가 활동 지역이고, 임예지, 전희선 선생님은 활동무대가 제천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협업은 조울 지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협업 활동을 나누어서하기로 협의했다. 협의 사항은 이렇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서 14시 30분까지의 협업 활동 중 1, 3주는 전체가 단양디자인발전소에 모여 기관협업과 참여예술인 전체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3회차 협업 활동은 조송주, 김길은, 한을순은 청주에서, 그리고 임예지, 전희선은 제천에서 각각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 ▶ 이제 협업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업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단양디자인발전소의 니즈(주제)는 아주 특별하다. 선주민과 관광객이 조화롭게 접촉하고 교류하기 위한 단양 연구가 그 첫 번째 주제라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서의 단양 연구가 그 두 번째 주제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두 주제 중 결국은 한 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 때문에 우리들은 협업 주제에 대한 실마리로써 이미 우리보다 20년 앞서 지방소멸이 이루어졌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작은 마을의 사례집 <마을의 진화>라는 책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기로 하였다.
- ▶ 마무리로 우리들의 첫 번째 협업 활동을 ‘놀이 가시라!?’는 넉넉한 덕담’과 점심 만찬으로 지지해 주신 단양 읍사무소 김학민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단양디자인발전소 협업 기관인 청주의 ‘씨티엔 컬쳐’ 이길환 대표님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6월

- ▶ 5월이 시작의 달이었다면 6월은 협업 활동이 차분히 자리를 잡는 달이라 하겠다. 하지만 단양디자인발전소에는 약간의 혼선 아닌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단양디자인발전소가 1인 기업이다 보니 대표님이 모든 일을 다 커버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많았었다.
- ▶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했다. 따라서 단양디자인발전소 대표님은 기업협업 일에는 약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협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 이에 우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그래서 단양디자인발전소와 협업기업인 ‘씨티 앤 컬쳐’에서 예술로 사업을 전담하는 방식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며, 이 방식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단양디자인발전소 예술로 사업은 6월부터 ‘씨티 앤 컬쳐’ 이길환 대표님이 전담하시기로 하여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길환 대표님을 ‘예술로 단양’ 사업 단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 ▶ 또한 단양디자인발전소 파견예술인사업 ‘예술로 단양’은 크게 세 가지의 활동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가 ‘단양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인데 이것은 기업,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모두가 협업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스토리텔링을 활용 한 이미지(캐릭터 등) 개발인데 이 부분은 김길은, 한울순 작가가 전담하고 있다. 나머지 세 번째 방향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음원(음악)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희선, 임예지 작가가 전담하게 되었다.
- ▶ 따라서 6월 협업활동에서는 ‘단양 문화 콘텐츠 발굴’이라는 구체적인 협업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참여예술인들은 위 협업 주제에 맞추어 개별 활동도 진행한 한 달이었다.
- ▶ 끝으로 7월에는 스토리에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단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확정’함으로써 다음단계로 한 발짝씩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에 밑일이 되어주시는 이길환 ‘예술로 단양’ 사업 단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본다.

7월

- ▶ 7월은 스토리에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스토리텔링을 계속 키워나간 한 달이었다. 우선 스토리에서 '운사'와 '우사'의 갈등 장면에 대한 이유를 설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두가 모여 여러 가지 방향의 아이디어를 냄으로써 풀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다.
- ▶ 그리고 이번 달 끝 무렵에는 충북문화재단(최영갑 팀장, 김종희 담당)에서 모니터링 겸 응원 겸 와 주었는데, '타깃을 명확히 설정했으면 좋겠다.'와 '예술가들이 얻을 것과 기관이 얻을 것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와 또한 '2~3년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등의 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 ▶ 개별 활동의 경우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이미지'와 '음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쏘스들을 모으고 공부하는 과정이었으며, '스토리텔링'에는 기관과 리더예술인이 맡아서 협업하는 구조였으며, '이미지'는 김길은, 한윤순 작가가 한팀이 되었으며, '음원' 개발은 임예지 전희선 작가가 진행하고 있다.
- ▶ 결론적으로 7월을 정리해 보면 '단양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확정'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 한 달로 평가된다.

8월

- ▶ 8월 아래와 같이 확정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개별 활동에 집중한 한 달이었다.
제목 : 평온수결전(제5장으로 구성)
 - 1장 개천 : 홍익인간의 세계를 열다.
 - 2장 환생 : 우사와 운사 환생형에 처하다.
 - 3장 환생 : 우사와 운사, 인간으로 돌아오다.
 - 4장 망각 : 천제 환인의 명을 잊다.
 - 5장 다시 환생 : 우사와 운사 다시 환생형에 처하다.
- ▶ 예상 결과물을 예측하며 협업 활동을 하였다.
 - 메인은 '스토리 북'
 - 부록 1은 '이미지 민화동화', '이미지 캐릭터(굿즈 제작용)'
 - 부록 2는 '스토리텔링 기반 음악 선곡' '스토리텔링 기반 작곡 2'
 - QR코드를 활용한 듣기 시스템 마련
- ▶ 결론적으로 8월을 정리해 보면 확정된 '단양 문화 콘텐츠로써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개별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스토리가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터라 실질적인 '고증' 작업도 분주히 해 나갔던 무더운 한 달이었다.
- ▶ 다음 9월에는 8월 활동에서 창작된 결과물들을 심화시키는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 ▶▶ 9월은 아래와 같은 협업과 의견 조율을 거치며 지나온 한 달이었다.
- 9월 현재의 기관(대표)의 입장은 올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들이 활용 되어졌으면 하는 의견과 그것이 상업성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대해 파견 예술인들의 입장은 최대한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올 사업이 첫해인 만큼 '스토리텔링'을 근간으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 결과물들이 기관의 매개(영업)에 의해 차근차근 문화상품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 ▶▶ 위와 같은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시각 파트와 음악 파트는 아래와 같이 협업(개별)활동을 지속 함
- 한울순 선생님의 병풍은 조금 더 단순화 됨으로써 어느 한 부분만 떼어냈을 때 그것이 상업적으로 활용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작업 중
- 김길은 선생님의 현대화 된 평강과 온달 캐릭터 드로잉을 기초로 여기에 단양의 문화사업(패러글라이딩, 카누 집라인 등)을 결합시킨 단양만의 이미지 굿즈 상품 개발의 방향으로 작업 중
- 음악 파트의 경우 2가지 방향성에서 1가지로 압축됨 : 평원수결전을 바탕으로 한 5악장의 음원을 '선곡 및 작곡, 그리고 연주'를 가미하여 유튜브로 만드는 방향성
- 따라서 음악파트의 경우 유튜브 결과물을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 대두
- ▶▶ 결론적으로 9월을 정리해 보면 확정 된 '단양 문화 콘텐츠로써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분주히 작업하고, 이를 공유 수정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고 파이팅한 한 달이었다.
- ▶▶ 이제 마지막 남은 10월은 결과물을 잘 정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10월

- ▶▶ 10월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마무리 달로 협업 결과물을 완성하는 한 달이었다.
- 우선 기관(대표)의 입장은 올해 만들어진 모든 성과(결과물)들이 상업성과 연결되어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뒤늦게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취지를 파악한 후 다음 기회에 라는 여유를 찾는 첫 해였다.
- 올해 사업이 첫해인 만큼 파견예술인들은 '스토리텔링'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 결과물을 만들고 모아 소책자 자료집으로 완성하였다.
- ▶▶ 결과물의 방향성은 크게 '시각 파트'와 '음악 파트'로 나뉘지만, 이 결과들의 근간에는 '평원수결전'이라는 스토리텔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소책자를 편집하였다.
- 첫 번째 리더예술인과 협력기관이 주축이 되어 탄생한 '스토리텔링'에는 한울순 샘의 민화 병풍 그림을 결합하여 스토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텍스트의 지루함을 극복하고 시대(고구려)적 배경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하였다.

두 번째는 김길은 선생님의 드로잉을 활용하여 평강+황쏘가리, 온달+수달이 결합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기본 캐릭터 2종을 바탕으로 단양의 관광 사업(패러글라이딩, 카누 집라인 등)을 표현한 다양한 활용 캐릭터들을 개발하였다. 이 활용 캐릭터들은 언제나 단양만의 이미지 굿즈로써의 가능성 지점에 있다.

세 번째 음악 파트의 경우 '평온수결전' 5악장을 바탕으로 '음원 선곡' 및 '작곡'에 '연주'를 가미하여 유튜브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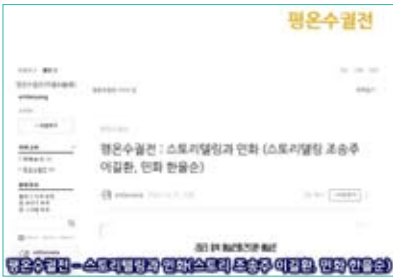
또한 위의 모든 결과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QR코드로 들어가는 '블로그'도 제작하였다.

» 결론적으로 올 '단양디자인발전소'와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단양의 문화 콘텐츠(스토리텔링)'를 바탕으로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작업하고, 협업 논의를 통하여 수정 공유하는 방식에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고 노력하였다.

» 끝으로 예술인들의 협업 활동을 믿어준 '단양디자인발전소' 김학구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협력기관 이자 전담으로 예술로 단양 사업 단장을 맡아주신 '씨티 엔 컬러' 이길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함께 한 4명의 협업 예술인들의 협업 활동이 훗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결과 |









| 예술인소감 |

리더예술인 조송주 💬 올 '단양디자인발전소'와의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단양의 문화 콘텐츠(스토리텔링)'를 바탕으로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작업하고, 협업 논의를 통하여 수정 공유하는 방식에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고 노력하였다. 예술인들의 협업 활동을 믿어준 '단양디자인발전소' 김학구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협력기관이자 전담으로 예술로 단양 사업 단장을 맡아주신 '씨티엔컬처' 이길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함께 한 4명의 협업 예술인들의 협업 활동이 훗날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여예술인 김길은 💬 3년 연속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협업을 할 수 있었다. 올 2023년은 단양지역의 단양디자인발전소라는 1인 기업에 매칭되어 단양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였다. 청주와 단양은 거리로만 생각한다면 쉽게 선택하고 싶은 매칭 기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소멸 위기의 작은 도시에 대해 주목하고 싶었고 예술인의 시각으로 다시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었다. 나는 단양을 소개하는 캐릭터를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었다. 캐릭터는 굿즈 등 다양한 쓰임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함께 활동한 예술가들 또한 평온수결전(스토리텔링)에 맞춰 민화 병풍도, 작곡, 선곡 등 수준 높은 활동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결과물은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다.(QR코드를 생성하여 결과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올 2023년 협업 활동은 장거리를 오가는 부담은 있었지만 어느 해 보다 좋은 협업을 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참여예술인 전희선 💬 기업 매칭이 되기 전, 단양에서 활동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단양이라는 곳이 인구가 많이 적고, 노령인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지역 자체를 보았을 때 남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공기 좋고 자연경관이 정말 예쁜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이곳을 예술의 도시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양디자인발전소로 예술로 선생님들 5인이 매칭되었다. 미술과 음악 분야 선생님들이었는데, 어떻게 협업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단양의 대표적인 온달관광지, 쏘가리, 수달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들의 민화, 그리고 캐릭터, 음악 분야는 창작곡, 그리고 선곡 등을 하게 되었다. 예술로 활동을 하면서 평상시에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고민하는 예술인으로 성장해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참여예술인 한을순 💬 지난해 환경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한 예술로, 지방 소멸을 생각하며 왕복 300Km를 오가는 차 안에서 많은 현상이아기와 [마을의 진화]를 읽고 단양을 자세히 둘러보며, 예술로-단양 활동은 평온수결전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 각팀의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와 8쪽 병풍 그리고 음악 팀의 작곡과 선곡 및 연주와 동영상 이 모두를 종합하여 결과 자료집과 블로그 업로드로 2023년 봄 새싹은 가을 단풍으로 예술로 활동을 마무리한 예술로-단양 활동은 행복을 가득 충전한 미래의 날들이었습니다.

참여예술인 임예지 💬 이번 예술로 파견지원사업은 단양디자인발전소와 함께하며 소멸위기 작은 도시인 단양에 대하여 예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단양의 문화 예술적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기획과 미술 하시는 예술가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문화적인 다양한 시각과, 좋은 경험, 모두가 노력해 주신 결과물까지 얻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관소감 |

그동안 청주권에서만 진행해 온 충북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처음으로 충북의 오지이며, 소멸 위기에 가장 근접한 단양에 소재한 기관(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단양의 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해 청주 거주 예술인 3인(리더 포함), 제천 거주 예술인 2인이 지난 반년 동안 애써 주신 점에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주권 예술인 3분은 한 달에 두 번씩(왕복 400km) 총 10회에 걸쳐 4,000km를 넘나드는 노고를 아끼지 않고 본인들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사업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단양의 캐릭터인 온달과 평강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이를 뒷받침하는 민화와 캐릭터, 그리고 음원개발까지 주옥같은 킬러콘텐츠 후보들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킬러콘텐츠를 활용한 소멸위기도시 단양의 활로를 찾는 데 일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단체사진 |



청주 YWCA

| 기관소개 |

(사)청주 YWCA는 1965년 창립하여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따뜻한 손과 힘 있는 발걸음을 회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23해째 여성영화제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지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살려보자는 로컬푸드 운동, 탈핵대안 에너지운동, 성평등운동을 펼쳐 나가며 지역의 성인지력을 향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 YWCA는 탈핵기후생명운동과 성평등운동이 지향하며 청주 YWCA는 '사람'이다.라는 기조로 회원과-시민조직이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소개 |



리더예술인
정지영 (무용·연극)



참여예술인
강효경 (미술)



참여예술인
노경민 (미술)



참여예술인
유병하 (사진)

| 협업활동 프로젝트 기획의도 |

리서치 및 연구

청주 YWCA의 58년의 역사 안에서 여성의 가능성으로 인해 이루어진 많은 시행착오의 투지와 성과가 존재함을 기관 리서치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 건물은 역사와 깊이만큼 다소 낡은 외관을 보이고 있고 그 내부는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별어진 바닥과 깨진 벽과 틈 그리고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진 벽면과 많은 이가 부르짖었던 선언의 울림들이 차곡차곡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예술인들의 시각적 감각을 통해 기관의 그동안의 뜨거운 노력들을 보듬고 싶었고 때로는 치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었다. 기관 내부의 아트 월을 구성하여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고 캐릭터의 정체성을 넣어 캐릭터 디자인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성과

- 기관의 대표 캐릭터를 창작하고 제작하여 기관 내부 중심의 계단을 잇는 벽면에 팝 아트 형식을 착안한 캐릭터 포스터를 설치
- 아트월은 기관의 앞으로의 역사에 하나의 아카이빙자료로써 창작된 대표 캐릭터는 매체에 계속되어 활용되고 회자될 것
- 기관을 찾는 이들의 청주 YWCA의 아트 월 사진을 찍으면 랜드마크의 표시
-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 SNS 등의 체계로 연동

기획

앤디 워홀 '예술에 있어서는 항상 자유로워야 하며 표현은 나를 나타내는 것' 예술가는 꼭 자신이 창작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 창의적 결합으로 작품성을 표현하는 작가

(사)청주 YWCA:보편적인 젊은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이미지의 캐릭터를 설정

1. Y.W.C.A 이니셜의 의미하는 대표색과 대조적 색감으로 캐릭터를 배치하여 세련되게 표현
2. 대중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많이 알려진 팝 아트의 형식을 착안하여 디자인을 완성
3. 그 디자인의 캐릭터의 의미하는 문구 텍스트를 삽입하고 인쇄
4. 인쇄 후 촉광안료(발광) 사용하여 대표 Y.W.C.A의 이니셜에 덧칠하여 어두움을 밝히고 특히, 캐릭터의 눈의 촉광안료를 사용함으로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 없이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집중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

| 기획 레퍼런스 |



| 과정 |

5월

» 기관 리서치

(YWCA리서치, 국제 YWCA리서치, 청주 YWCA리서치)
(서울국제영화제 관련 리서치, 청주여성영화제 리서치)
(청주 YWCA 농민장터 최근 5년간 리서치, 청주시유기농마케팅센터 리서치)

» YWCA 담당자 한기연팀장과 리더 소통내용 공유 및 예술인 소통

예술인의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개발 회의
(주제: 예술적 역량 경험과 기관과의 예술적 협업구조 마련)
(예술인들의 발표 및 제안 공유)

» 협업을 기반한 예술인 복지 실현 프로젝트 회의

(예술인 복지실현의 리서치 공유, 예술인들의 복지란 무엇인가, 해외 예술인의 복지정책 및 방향에 대해 공유, 예술인 각자의 예술 협업 및 복지의 생각 토론 및 공유)

» 5.23 회의 진행 및 방향성 예고 토론 및 공유

- 리더예술인 예술로지원사업 제작영상 (2020년도 협업) 시청 후 예술인들과 청주 YWCA의 관련 홍보 ex 릴스영상제작 업로드의 의견 토론 (진행한다면 어떤 주제와 목적 방향성을 두는가 또는 현실적으로 영상제작 관련 진행은 실현가능한가)
- 예술인의 예술로 협업의 공감 및 방향성의 회의
- 여성영화 관련 영상시청(여성소재영상관람 2편)
- 예술인 공감 소통 공유
- 협업회의 일정 수정 및 보완
- 활동보고서 서류 작성 및 방법 공유

- » 예술 각 분야의 참여예술인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다채로움과 성향의 다양성 표현 영상제작관련하여 짧은 홍보를 위한 젊은 시각에서의 예술을 활용한 홍보방식으로 릴스 등의 영상을 청주 YWCA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회의가 진행
영상 홍보의 필요한 제반 사항의 가시적인 제안과 검토 공유

» 개별

개별활동은 협업활동 계획의 맞춰진 리더예술인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지식의 개별 리서칭으로 5월의 활동을 주로 계획 진행하게 되었다. 5월의 활동 시작일이 다소 급하게 시작된 것인 만큼 참여예술인으로서 처음 활동을 참여하게 된 어단비예술인과 강효경예술인의 안내를 돕고 활동 보고 서등의 안내와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기존 사업의 참여자로는 유병하예술인, 노경민예술인은 활동경력이 있으므로 부드러운 활동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사업 초반으로써 상세한 안내와 계획으로 혼

선을 빚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담당자와는 통화와 온라인 회의 진행으로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서로의 이해와 앞으로의 사업진행의 제안 및 공유 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6월의 일정 안내와 조율을 위해 협의하였다.

6월

- ▶ 이번달은 기업의 이슈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하여 각 예술인들의 기관 리서치와 기관의 니즈를 파악 하기 위한 공간의 재해석을 위한 예술적 확장성의 의미를 두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공간의 시각화 영상화를 활용하여 공간의 찾는 의미의 공간형성의 귀를 기울였으며, 6월 16일 재단의 리더예술인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전체적인 활동들의 진행단계를 이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관련 간담회 내용은 예술인들에게 텍스트로 정리하여 공유하였으며 예술인들의 사업의 참여하는 타 예술 그룹의 소식지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 ▶ 6월 20일 기관 방문에서의 기관 사무총장 이해정님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존의 예술인과의 기관 니즈의 관한 방향성에서 조금더 나아가는 의미가 있었고 공간의 특별한 이야기로 가능성을 열었던 여성의 이야기가 키워드가 되어 각 예술인의 장르적 특성을 활용한 가능성의 접점을 찾아 발표 하는 시간도 있었다.

7월

- 공간의 재확인으로 이에 적용시킬 재료에 대한 의견 나누기
- 포스터 디자인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포스터의 기능성과 목적성에 대해 알아가고 다양한 디자인 요소 표현법에 관해 파악
- 리서치 내용을 토대로 포스터 연구 제작 및 온라인 회의 자료 제작
- 공간의 시각 미술적 개입 가능성 위치 발견 및 가능성 여부 논의
- 픽토그램 포스터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픽토그램이 가진 성격과 이를 활용했을 시 표현 효과에 대해 파악
- 기관의 니즈 장소와 예술인의 의견 픽스 및 상징성의 캐릭터 탄생의 스토리텔링 의미 구현
- 픽토그램 포스터 연구 제작 및 온라인 회의 자료 제작
- 엠비언트 광고를 알아보고 스토리텔링 표현력에 대한 파악 및 의견 나누기
- 공간연출 실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모색
- 공간구성의 실행 위치 확인 및 실행을 위한 예술인의 의견 나누기
-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리서치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성 및 구성요소 등에 대해 파악
- 아이디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리서치 뿐만 아니라 포스터를 연구하고 제작을 시도하는 과정을 밟음

8월

- 디지털 마블링 표현기법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기법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고 파악함
- 디지털 마블링 표현기법을 적용한 포스터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 실현 장소 재 탐색 및 적용 소재 회의
- 참여 예술인들의 협업 회의 공유, 색의 의미 스토리텔링
- 포스터 스토리의 일관성에 관한 의견 회의
- 그라데이션 표현기법을 활용한 포스터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1
- 그라데이션의 표현 기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색상을 섞어 젠더리스 색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의미를 담은 단계를 밝음
- 그라데이션 표현기법을 활용한 포스터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2
- 공간 시각화의 본 실행을 위한 각 참여 예술인들의 A안, B안 자료 공유 및 기관과의 픽스를 위한 정리
- 기관과의 협업 접점을 위한 의견 조율
- 그라데이션 표현기법을 활용한 포스터 4개의 피드백을 수용한 수정 및 직접 페인팅 할 시 비용에 대해 서치, 이에 대한 회의 자료 제작
- 공간 시각화의 본 실행을 위한 A안, B안 수정 자료 공유 및 기관과의 협업 접점을 위한 회의
- 기관 공간 내의 본 실행을 위한 참여 예술인들의 작품 재공유 및 기관과의 협업의 접점을 위한 활동 방안 회의

9월

- >> YWCA의 각 용어의 의미를 담은 로고 및 캐릭터를 제안
- Y : 씨 뿌리는 여성 (청년, 수평, 변화, 극복의 의미)
- W : 성장, 리더십 (여성의 의미)
- C : 새로운 세상을 여세 (돌봄, 평화)
- A : 우산을 함께 쓰고 있는 여성 (공동체적 활동의 의미)
- 각 4개 포스터의 YWCA의 여성의 캐릭터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표현 캐릭터 탄생
 - 정정자 증경회장님의 사진 자료를 활용한 1차 러프 시안 제작
 - 캐릭터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1
 - YWCA 캐릭터 구현 아이디어 회의 1
 - 공유된 정정자 증경회장님 사진을 활용하여 캐릭터 및 로고 개발 관련 아이디어 회의
 - YWCA 캐릭터 구현 아이디어 회의 2
 - 정정자 증경회장님의 이미지를 적용한 캐릭터 연구 수정 제작
 - 캐릭터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2
 - 정정자 증경회장님의 이미지를 적용한 캐릭터의 색감 연구 제작
 - 캐릭터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3
 - 정정자 증경회장님의 이미지를 적용한 캐릭터의 동작 적용 연구 제작

- 캐릭터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4
- YWCA 로고 캐릭터 및 머릿돌 그림 디자인 발표 회의
- YWCA 캐릭터 구현 수정 및 보완 회의 1
- YWCA 캐릭터 구현 수정 및 보완 회의 2
- 팝아트 색감과 YWCA 상징색 및 YWCA 단어에 내포된 내용 글을 적용한 캐릭터 포스터 연구 제작
- 캐릭터 포스터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 YWCA 캐릭터 발표 및 팝아트를 착안한 캐릭터 디자인 결과 관련 총회의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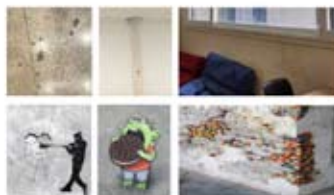
- 캐릭터 포스터 수정 연구 제작 및 회의 자료 제작
(변경된 YWCA 상징 색을 적용한 캐릭터 색 재구성 및 포스터 글 재배치)
- 촉광 안료 리서치 및 회의
(YWCA 포스터 특정 부분에 덧칠할 촉광 안료 리서치)
- YWCA 포스터 적용 디자인 및 안료 회의
(YWCA 상징색을 활용한 마블링 작업 논의 및 안료 테스트 실행 작업 논의)
- YWCA 포스터 디자인 수정 회의
- 개인 작업 영상 촬영 편집 및 안료 리서치
- YWCA 포스터 촉광 안료 회의
(YWCA 포스터에 적용될 촉광 안료 사용법 영상 시청 및 사용 범위 논의)
- YWCA 포스터 및 재료 확인과 안료 연습
(재료 확인 및 촉광 안료 혼합 비율 연습 시행)
- YWCA 포스터 안료 적용
(YWCA 포스터 촉광 안료 덧칠 작업 진행)
- YWCA 포스터 설치 및 공간 작업 마무리 확인
(YWCA 포스터 각 위치에 설치 진행 후 (사)청주 YWCA 이해정 사무총장님과 한기연 팀장님과의 설치 상태 공유 및 소감 공유)
- YWCA 기관 성과 공유발표
(청주 YWCA 기관에서 진행한 예술로 성과 발표)
- 예술로 성과공유회 자료 회의
(10월 31일 충북문화재단 예술로 성과공유회 발표 자료 수정 및 보완)

<7~8월 후기 : 공간구성의 예술적 솔루션 과정>

~ 초기 개관 공간 구상 및 도면 ~



<7~8월 후기 : 공간 구성을 위한 과정 솔루션 고안 (레퍼런스)>



<후기 : 대표 캐릭터 제작 및 제작을 위한 예술인 각 초상 발표>



관장차 위장년



김현혜



노경민



김유진

해마다 선점 제작 디오피스 과정 <5-1>

~ 새로운 해마다 선점 제작의 완성



2023년 10월 17일 (화) 오후 12:35



2023년 8월 28일 (월) 오전 10:10

해마다 선점 제작 디오피스 과정 <5-2>

~ 10대 해마다 선점 제작의 완성



해마다 선점 제작 디오피스 과정 <5-3>

~ 20대 해마다 선점 제작의 완성



홍익대 선점 제작 디플로 고풍 <5-5>

- 홍익대 예술관 5기 5층에 설치 예정임



Y W C A

홍익대 선점 제작 디플로 고풍 <5-5>

- 홍익대 예술관 5기 5층에 설치 예정 (홍익대, 교정대, 노년대 등)



<아트 할 해지 공간>



제1관 1-3층 역전 공간



가인 50cm, 세인 80cm

(사)청주YWCA 임의유치 후원 (전시: 예술관 5기 5층, 예술관 5기 5층)



(사)청주YWCA 홈페이지 게재 (예술로 확산지원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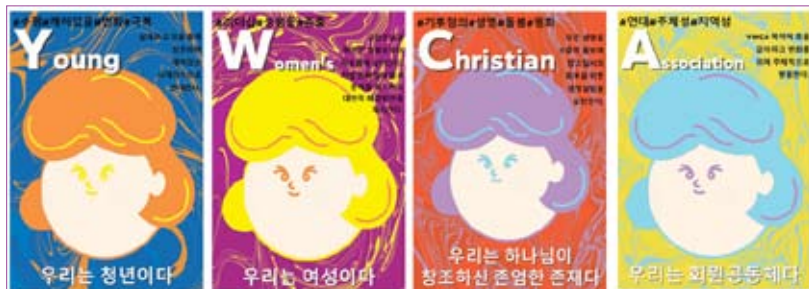


(사)청주YWCA: 예술로 확산지원 QR 코드



<QR코드 생성: 홈페이지 연결>

| 결과 |



| 예술인소감 |

리더예술인 정지영 💬 2023년 예술로 파견지원사업의 리더 예술인으로서 청주 YWCA를 맡아 활동하는 기간 내내 기관과 재단 그리고 참여예술인의 매끄러운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결과가 모두가 만족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의 취지와 성취과제의 해결점을 파악하고 시행착오 안에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의 결과가 유의미한 성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술인 강효경 💬 참여예술인으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팀 호흡의 중요성과 프로젝트 과정을 통한 속도와 조율에 관해 깊게 배운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확장된 시각으로 예술의 가치에 접근하는 방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예술인 노경민 💬 회화를 전공한 작가로서 기존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에만 익숙했었는데 이번 활동에 포스터 디자인을 하게 되어 디자인 프로그램(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독학하여 제작한 아이템들이 모두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예술로 사업 덕분에 디자인의 영역에 도전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한다. 앞으로 또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거나 다른 사업, 혹은 스스로의 도록이나 엽서 디자인도 서툴지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참여예술인 유병하 💬 YWCA와 협업은 정말로 흥미로웠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저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예술과 사회의 이면을 탐구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시각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조율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YWCA 단체와의 협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예술의 힘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깨달았습니다. 이 협업을 통해 저는 예술의 힘을 믿고, 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YWCA 단체와의 협업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 예술과 사회의 융합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 기관소감 |

충북문화재단의 예술로 파견지원으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청주 YWCA의 새로운 대표 캐릭터를 만들어 내부 공간과 입구에 아트월로 전시하게 되어 기관의 오래되고 딱딱한 공간이 새로 태어난 듯 공간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캐릭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응용하여 잘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기관과 재단 참여예술인의 소통을 매개해주신 리더 정지영 예술인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 단체사진 |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

| 기관소개 |

청주시새활용시민센터는 청주시가 건립한 자원순환종합시설로 2019년 개관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풀 꿈환경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이 절실한 때 다양한 체험·교육·전시·홍보프로그램 운영과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활동 등을 통하여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과 정책발굴, 새활용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소개 |



리더예술인
박해빈 (미술)



참여예술인
김윤섭 (미술)



참여예술인
이재문 (무용)



참여예술인
임윤묵 (미술)



참여예술인
한성녕 (음악·국악)

| 협업활동 프로젝트 기획의도 |

2022년 예술로 사업 참여를 통해 재능 넘치는 다섯 명의 예술인들이 '팀'이 되어 청주시새활용 시민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재활용·새활용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업활동 프로젝트를 진행, 새활용을 주제로 예술적 가치를 덧대었을 때 결과물로써의 다양성, 친환경 가치의 사회적 확산경로 발굴 등 참신한 아이디어 구현의 가능성 발견

지난해의 성과에 뒤이어 자원순환·새활용이라는 환경가치와 예술(예술가) 본연의 가치가 어우러지고 특히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새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가치가 더욱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는 물론 물건과 사람과 활동, 도시 모두의 지속가능한 가치가 업그레이드되는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 기대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은 다시 시민에게로 되돌아가며 새활용 센터에 대한 시민인식과 이용도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 과정 |

5월

» 5월 12일에 예술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시작이 늦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업활동을 신경 써서 진행하였다. 새활용 시민센터는 필수협업활동 외에도 되도록 모든 참여예술인들 모두가 함께 기관에서 만나 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예술로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참여예술인들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이 많은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었고, 새활용 시민센터가 그동안 예술로 사업을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보냈다. 참여예술인 모두가 새활용과 새활용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매 협업활동 중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오갔다. 기관의 관계자들과 참여예술인 전체 상견례 시간을 만들어 각자를 소개하고 올해 예술로 사업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다. 기관은 예술로 사업을 통해 협업프로젝트의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예술로 사업 이후에도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예술가가 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 달의 협업활동을 진행해 본 소감은 참여예술인과 기관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었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올해는 활동의 기대감이 더 커졌다.

6월

» 6월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며 참여예술인들과 다 함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기관 청주새활용 시민센터에서는 참여예술인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협업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염우 관장님께서 기관의 비전 및 설립 취지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을 위한 실천 운동 그리고 심각한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자료들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주셨다. 참여예술인들은 폐현수막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안 작업을 위해 각자 개별적으로 아이디어 구상 및 샘플 작업을 위해 폐현수막을 나눠 가졌다. 폐현수막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내구성이나 심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적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제작과 심각한 폐현수막 쓰레기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9월 '자원순화의 날' 행사에 음악, 무용, 미술의 장르 간의 협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 중이다. 새활용 캠페인 송 작곡 및 작사, 새활용 체조, 자연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는 공연 기획 등 여러 가지 안건이 논의되었다.

7월

» 7월은 폐현수막을 가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갖고 난 후 문제점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참여예술인들의 의견은 폐현수막을 새활용한 것에 대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내구성과 심미성이 떨어져 폐현수막으로 조형 작품을 만들고 난 후에 보존 관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의견들이 있었다. 현수막 제작을 자제하고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하기 위해 나왔던 아이디어 중 폐현수막으로 글자를 모듈화 하여 행사 때마다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센터에서 관리하고 보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폐현수막을 소재로 진행하는 협업이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이 제시되어 '폐현수막을 꼭 활용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 끝에 소재 선택에 있어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자원순환의 날에 발표할 재활용 캠페인송 및 재활용 체조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협업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캠페인송 작사에 필요한 주요 내용의 ppt 자료를 공유받았다. 다 함께 가사를 쓰는 방향에서 작곡을 한 한성녕 참여예술인이 작사를 곡에 맞춰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무대미술, 음악, 무용의 협업 공연을 위해 각자 예술장르에서 아이디어 구상 중이다.

8월

- ▶ 기관 청주재활용 시민센터의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협업으로 참여하기 위해 실질적인 준비와 완성의 시간을 보냈다. 한성녕 참여예술인이 작곡한 '재활용 캠페인 노래'가 완성되어 이재문 참여예술인이 '재활용 체조' 안무를 완성하였다. 한성녕 참여예술인이 작사 작곡한 재활용 캠페인 송을 어린이 목소리로 녹음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어린이를 섭외하고 녹음 작업을 진행하였고 후보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행사 중 '자원 순환 토크쇼'에 퍼포먼스 공연으로 협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었다. 무용가 이재문 참여예술인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시각예술작가 김윤섭, 박해빈, 임윤묵은 무대미술 설치 작업으로 참여한다. 퍼포먼스의 콘셉트와 무대미술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많았고 서로 협업하기 위한 토론과 의견 수정 작업이 계속되었다. 예술로 사업 초반부터 계획하던 예술 장르 간의 협업이 본격적으로 실행으로 옮겨지는 시기를 보냈다. 기관과의 의견 조율 및 제작비 지원 조율등 중요한 사안들이 문제없이 모두의 노력으로 잘 진행되었다. 9월 6일 자원 순환의 날에 예술로 협업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9월

- ▶ 그동안 기획해 온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플라스틱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주제로 준비한 퍼포먼스 공연을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청주재활용 시민센터에서 주최한 행사 중 자원순환 포럼에서 '플라시보틱'이라는 공연을 선보였다. '플라시보틱' 공연은 미술과 무용의 협업으로 무대미술과 퍼포먼스를 함께 기획하여 만든 퍼포먼스 공연이다. 예술분야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연을 위한 아이디어부터 무대설치 작업까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하나의 협업프로젝트는 음악분야 한성녕 작곡가가 작사 작곡한 '환경의 노래'에 이재문 무용가가 분리배출의 실질을 담은 율동을 만들어 '재활용 체조'를 만들었다. 자원순환의 날 마지막 코너로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 및 청주시민들과 '재활용 체조'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재활용 체조'는 청주재활용 시민센터의 교육간사 김아라 선생님이 참여하여 함께 선보였고 앞으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9월은 기획했던 협업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시간으로 기관과 청주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10월

» 10월은 '환경의 노래-분리배출 체조' 영상 촬영 작업을 진행하였다. 영상촬영을 위한 촬영감독 섭외와 체조를 할 어린이 섭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예술로 사업의 마지막 달로 체조영상 촬영 편집을 완성하여 체조 영상을 성과공유회 때 발표 할 계획이었다. 풀꿈문화재단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토요일만 가능하고 정해진 네 시간 안에 촬영을 진행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스케줄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애초에 섭외한 촬영감독님과 스케줄이 맞지 않아 급박하게 다른 촬영감독님을 섭외하여 10월 28일에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다. 예술로 사업기간 내에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성과공유회에서 분리배출 체조 영상을 발표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컸다. 공식적인 예술로 사업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에 성과공유회를 진행하여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각 팀의 협업활동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팀은 리더예술인과 참여예술인 모두가 성과공유회 자리에서 각자의 소감이나 협업에 관련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기간 중에도 우리 팀은 팀워크가 좋았지만 성과공유회 자리에서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하였다. 기관인 청주새활용 시민센터에서는 같은 날 새활용 공예비엔날레 행사가 겹쳐 마지막 자리에 팀장님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 성과공유회가 끝나고 우리 팀은 남아있는 새활용 체조 영상 마무리 편집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6개월을 리뷰하면서 돈독한 시간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 결과 |

- 〈환경의 노래〉 캠페인 송 작사, 작곡 | 음악 한성녕 작사, 작곡
- 〈새활용 체조〉 안무 기획
분리배출 실천을 주제로 한 〈환경의 노래〉에 맞춰 체조 안무 기획 | 무용 이재문
-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참여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김아라 교육간사와 함께 체조 공개 및 발표
〈새활용 체조〉는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제작하여 청주새활용시민센터의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



•〈새활용 제조〉 영상 촬영 장면



• 미술과 무용의 협업으로 환경을 주제로 공연 기획 및 발표

미술 | 김윤섭, 박해빈, 임윤묵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하여 퍼포먼스 공연을 위한 무대미술 디자인 및 설치

무용 | 이재문

퍼포먼스



• 플라시보틱

플라시보(PLACEBO) + 플라스틱(PLASTIC) 합성어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 중 자원순환 포럼에 참여하여 공연 발표

• 〈자원 순환의 날〉 자원순환 포럼에 참여



| 예술인소감 |

리더예술인 박해빈 💬 청주새활용시민센터의 모든 관계자분들과 협업활동을 함께 한 참여예술가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 청주새활용시민센터는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와 기대 그리고 응원의 마음으로 협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해주셨고 예술가들은 각자 자신의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예술 장르 간의 협업을 위해 서로의 예술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모여 다양한 협업 활동을 고민하고 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활동한 시간만큼 정도 많이 든 우리 참여예술인들과 예술로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예술활동을 응원하고 또 좋은 예술협업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여예술인 김윤섭 💬 2023년의 예술로 파견지원사업은 참여예술인과 기관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기관의 행사 참여와 참여예술인들의 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각 예술인들은 서로의 영역에서 리더의 가이드 아래 활발히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많은 인원수를 가진 미술영역보다는 음악과 무용의 참여예술인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였던 것 같다. 흔히 시각예술은 결과물로 보이기가 좋아서 항상 활동의 주축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는 음악과 무용이 중심이 되어 더욱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다. 음악과 무용의 참여예술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예술로 사업의 경험이 충분한 청주새활용 시민센터에서의 활동은 많은 사업적 이해와 관심으로 참여예술인을 독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다시 한 번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여예술인 이재문 💬 처음 예술로 파견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 첫 만남인 청주새활용 시민센터와 박해빈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김윤섭, 임윤목, 한성녕 작가와 함께 2023년 예술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 반 기대 반 가득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 걱정과는 다르게 하루 이틀이 지날 때마다 리더예술인의 기준으로 참여예술인 모두 서로를 챙겨주며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돼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여러 회의와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추억과 예술 감각들을 배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청주새활용 시민센터도 예술인을 존중해 주며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자리를 조성해 주었고 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의 단합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예술로 사업이 끝났지만 다음 예술로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모두 함께 다시 만나 좋은 단합으로 새로운 좋은 결과를 만들거나 예술로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교류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고 싶은 예술로 사업은 저에게 오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험의 한 해가 되었습니다.

참여예술인 임윤목

☞ 먼저, 다양한 예술 형식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른 시각 예술가는 물론, 무용가와 음악가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다양한 형식을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발전시키는 데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관의 행사 참여자들에게 예술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 또한 고무적입니다.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용과 음악, 무대미술을 통해 기관 직원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조직 내 협력과 참여가 촉진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예술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더욱 몰입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시간과 자원이 한정되어 예산 및 시간 관리를 개선하고 추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계획이 어렵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기관과 예술가들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기업 및 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을 강화하고,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이러한 사회적 예술 활동을 미래에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 작가로서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며 창의성과 표현력 향상, 메시지 전달 방법, 다양한 관객 및 대중과의 소통, 커뮤니티 확장과 사회적 책임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예술인 한성녕

☞ 기업과 서로 다른 파트의 예술인들끼리 만나 낯설 안에서 예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소중한 배움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설렘을 가지고 시작했던 예술로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좋은 예술인들과 사람들을 알아가며 협업하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것을 넘어 인간적인 것들 까지도 배워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기관소감 |

올해로 세 번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에 참여하여 순수예술과 재활용의 접목에 센터와 같이 협업하여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 6개월간 함께 애써주신 박해빈 리더예술인, 김윤섭, 임윤목, 이재문, 한성녕 참여예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두 번의 협업에서 열정적인 모습과 유의미한 결과물에 고무되어 예술로 사업에 기대감 상승으로 너무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나 생각되어 미안한 마음이 한편에 쌓여 있었지만 역시 기대한 대로 충분한 결과물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도에는 박해빈 리더 예술인, 김윤섭 참여예술인만 재참여자고 모두 새롭게 매칭되어 자원순환과 재활용이 생소하지만 처음 미팅에서 재활용시민센터가 구상하는 재활용시민센터 전체공간에 대한 시민친화력 상승, 협업활동과 연계한 재활용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협업 주제로 잡고 시작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열정적으로 리서치하고 자원순환과 재활용에 부합하는지를 협업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청주시의 고민거리인 폐현수막을 재료로 자원순환의 날 기념에 멋진 공연과 환경의 노래 작사, 작곡, 재활용체조라는 성과물이 탄생하고 이 성과물을 토대로 향후 재활용시민센터에서 청주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공예에 대한 홍보효과로 쓰일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예술가분들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도 정말 다양하게 재활용 공간을 탐구하고, 재활용 아이템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신 예술인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시민센터와 협업을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아쉽지만 모쪼록 다시 멋진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기관은 채비를 잘해놓고 예술가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6개월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로 사업을 통하여 자원순환·재활용의 가치와 예술 또 예술가의 가치가 함께, 더 새로워지고 모두에게 이롭게 증폭되기를 기대합니다.

| 단체사진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 기관소개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충청북도가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 상담복지기관으로, 청소년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 예술인소개 |



리더예술인
민경준 (미술)



참여예술인
김성재 (연극)



참여예술인
정지현 (미술)



참여예술인
조예은 (음악)



참여예술인
최혜진 (무용)

| 협업활동 프로젝트 기획의도 |

정형화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많이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정형화된 프로그램 과정이나, 주제를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바가 없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2022년에 예술인 분들과 협업하여 진행한 토크 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은 한 편의 공연을 보고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에 어색해 하기는 했지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기에 다시 한 번 참여하게 됨

도내 시군 청소년들 중 문화 예술 관련 진로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과 진로탐색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돕고자 참여하게 됨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보고, 예술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함

Art + Tea + Talk 은

2022년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성과물로 예술 활동의 소통을 예술가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퍼포먼스 형식의 예술동행 프로그램이다.

2023년 아티톡

: 총 2회로 나누어 진행하며, 현장성을 극대화함

각 진행을 맡은 예술가의 예술동행에 중점을 두며, 현장성 강한 예술적 활동을 통해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연출하였다.



| 과정 |

5월

- » 1. 아티톡 콘서트 1부 ‘뻥도’ - 의미 : 웃음놀이에서 나오는 뻥도라는 단어로 한걸음 물러서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한걸음 물러서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의미를 알려주고자 했다. - 내용: 강연자가 본인의 인생을 주제로 연출한 무용 작품을 감상 후 청소년들의 나의 10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2. 아티톡 콘서트 2부 ‘두드림’ - 의미 : 예술가의 본업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다. 감동의 시작은 두드림이며, 서로의 마음을 두드려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 내용 : 천을 마주 보고 상대방을 손으로 두드려보며 선으로 그려본다. 이에 대해 어떤 두드림이 본인에게 다가왔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3. 아티톡 콘서트 3부 ‘별나게’ - 의미 : 우리는 모두 별난 구석을 가진 사람들이며, 모두가 독립적인 존재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뭣이 별난 건가? 예술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 만다라 드로잉 * 낙엽으로 책갈피 만들기 * 음악감상 후 그림으로 표현하기 * 배우기 쉬운 댄스타임---
등등 위 내용 실행검토

6월

- » 6월 한 달은 진흥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인 2022년 파견사업결과 ‘아티톡’의 현장활동을 기획하고 현장 활동을 실행하는 준비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자원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예술의 교감 폭을 확장하는 아티톡 콘서트를 준비하는 시간였다. 참여예술인들 각각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융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아티톡 콘서트 기획 매뉴얼을 습득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적용을 논의하면서 최근의 학교밖 청소년의 기사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흥원 실무자의 교체로 2022년 담당 실무자인 송경은 상담관이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따라서 2023 아티톡 콘서트 진행에서 사전 준비과정의 반복되는 요소는 최소화될 수 있어서 시간의 효율성이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은 진흥원이 콘서트 프로그램 일정을 2~3주 전에 제시하면 그 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실행 기획 안을 마무리하여 실행하는 사업 진행의 주기성을 확인하고 의견 교환을 했다.

7월

- » 6월 한 달은 진흥원 아티톡 콘서트 진행 개별 프로그램 구성을 1차적으로 참여예술인의 프로그램 2건을 마무리하고 살펴보는 과정을 진행했다. 진흥원 측의 8월 현장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기관협업과정에서 요청을 받고 7월 후반에 개별 프로그램의 독립 진행과 융합 가능한 프로그램의 구성 방안에 대한 협업 과정을 개별 또는 전체 협업에서 논의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융합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의견을 도출했다. 현재 완성된 개별 프로그램 10건을 기초로 8월 중에는 2건을 추가 개발하여 총 20건을 기본으로 병합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를 토대로 8~10월 중에 설계되는 현장 콘서트 진행을 합니다.

8월 이후 월 현장 활동 기획 일정이 진흥원에서 잡히면 최적의 프로그램 완성을 참여예술인들의 개인활동과 연계해서 조율을 해야 하는 조정의 활함을 위해 미리 일정 변화를 체크하는 협업 활동이 필요함을 각각 확인함. 따라서 진흥원 일정확정 이전에 예술팀과의 최종 확인 필요성이 있음.

8월

- ▶ 8월 활동은 2차 참여예술인의 프로그램 2건을 마무리하고 살펴보는 과정을 진행했다. 진흥원의 프로그램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됐다. 각 센터와의 조율과정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9월 이후 프로그램 일정을 조율하게 되었다. 다만 문제는 참여예술인의 개인 일정들이 바쁜 시기라는 점이다. 특히 공연 활동을 하는 최해진, 조예은 예술가의 활동은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체적인 조율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우선 예술인들의 가능시간을 체크하여 9월 첫 기관협업에서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프로그램 a 일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참여예술인 개인 프로그램 기획을 2건 정도 추가로 준비하여 총 30건의 프로그램을 활동할 수 있도록 8,9월에 준비하는 것으로 활동 중이다. 30건의 개별 프로그램 융합과정을 9월 주 활동 내용으로 설정하고 협업 시간을 통해 아티톡 프로그램 자료의 풍성을 만들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현장 공연으로 내용의 확충을 위한 준비를 위해 최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변수에 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9월

-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예술로 팀은 10월 14일과 19일 양일의 현장공연을 확정하게 되어 10월 초에 실행 기획회의 과정을 통해 최종 공연 기획을 마무리하고 현장 리허설을 진행하게 된다. 공연 장소로는 충북문화재단 1층 따비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되어 참여예술인들의 참여 방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현장 무대와 음향 등의 문제 플로어 문제 등 현장 검토 내용이 다소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10월 활동은 전반적으로 충북문화재단 현장 확인과 게스트, 관객 정리를 하는 것으로 활동 계획을 잡고 있다. 공연 내용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게스트와 무대미술 등 현장 활동이 동반되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협업 활동 위주의 일정이 예상되어 최대한 개별 활동을 협업으로 풀어가는 10월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문화재단과 진흥원과 협의 시간도 동반되는 일은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성과공유 준비를 위한 자료집 정리를 공연 부분, 융합프로그램 부분, 개별프로그램 부분 등으로 전리하여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10월

- ▶ 10월 진흥원팀 활동은 현장공연 2건을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1회 공연은 최해진 선생을 축으로 무용과 시각예술이 융합되는 프로그램으로 몸짓을 활용하는 먼티 그래픽 무용놀이를 실행했습니다. 이에 다른 참여 학생들의 반응은 프로그램 말미에 먼티에 싸인과 추가 드로잉과 시간, 답소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2회 차 진행은 조예은 선생 성악 갈라쇼를 중심으로 정지현 선생의 비즈공예로 선물을 만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추가로 요청하는 만들기과 성악가 조예은 선생의 진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에 주고받는 현장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아티톡 매뉴얼을 기초로 연속 진행하는 진

흥원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연속으로 진흥원의 사업 요구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는 자평을 할 수 있는 10월이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진흥원은 작은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격려해 준 김동준 센터장님과 담당 송경은, 김대현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결과 |

●내 마음을 예술로(路) 아티톡 콘서트 1회

- 무용 형식을 토대로 청소년과 호흡하면서 일종의 무용 놀이로 진행했다. 30분 정도 무용을 토대로 아티톡을 이끌어내며 후반으로 시각예술 영역으로 진행을 했다. 일종의 참여 미술로 먼 T에 서로의 몸동작을 통해 표현하는 일종의 집체극 연출이다.

●내 마음을 예술로(路) 아티톡 콘서트 1회 2막

- 만들어진 먼 T를 건조대에 말려야 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건조대를 설치하고 충북민예총민다방에서 토론과 다과를 하면서 건조시간에 아티톡공연에 대한 담소를 참여자들이 나눴다. 최종 완성(건조)을 확인하고 5층 회의실로 이동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공연을 마무리했다.

●내 마음을 예술로(路) 아티톡 콘서트 2회 1막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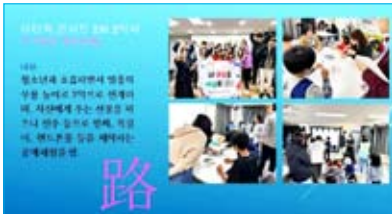
- 음악과 토크가 만난 '뮤지컬갈라쇼'

- 청소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이 쉽게 알고 있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OST로 선정

●내 마음을 예술로(路) 아티톡 콘서트 2회 2막차

- 청소년과 호흡하면서 일종의 무용 놀이로 2막으로 전개하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비즈나 진주 등으로 팔찌, 목걸이, 핸드폰줄 등을 제작하는 공예체험을 함





| 예술인소감 |

리더예술인 민경준 💬 2023년 총북청소년종합진흥원 예술로 파견지원사업 활동은 2022년 사업내용으로 연속 진행되는 아티톡 프로그램 실행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은 아티톡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개별 참여내용을 제안·협업하는 프로그램운동을 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 개발과 협업과정에 참여하는 예술인 활동과 청소년이 예술 동행하는 의미가 있었던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예술 활동에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예술인 김성재 💬 예술인파견의 가장 큰 장점인 다른 분야 예술인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음성이라는 지역 특색 상 자칫 고여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청주와 충주를 오가며 교류했던 시간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참여자들을 만나고, 시각,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앞으로의 예술활동에 큰 영감을 받은 6개월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향후 저의 예술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술인 정지현 💬 학교밖청소년이란 키워드로 시작된 총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의 예술로 사업은 기관과 대상자들을 알아가며 예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의 아티톡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조금은 인간관계에 치저있던 시점에 순수한 아이들과의 만남은 나에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여예술인 조예은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 대상 아티톡 콘서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청소년 대상 특히 학교밖 청소년 대상이라는 특정한 대상 공연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평상시 다양한 대상의 관객을 만나 공연 활동을 하지만 보통 음악 공연 위주로 진행하는데 이번 기회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고 그로 인한 청소년 관객의 높은 호응도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고려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진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예술인으로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소년과 나누고 이것을 기반으로 향후 청소년 대상 공연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예술인 최혜진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의 협업 아티톡 콘서트를 준비하며, 타 예술장르의 예술인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획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보람찼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본인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기관협업 작업을 통하여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곳에 이 역량이 쓰이길 소망해 봅니다.

| 기관소감 |

기관이 갖고 있던 성격과는 사실 거리가 멀 수 있었던 "예술"이라는 분야가 기관과 함께 접목될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음, 청소년의 입장에서 예술에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 예술자체가 진로인 청소년,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청소년, 예술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된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센터의 입장에서 센터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이 다른 차원으로 넓어진 경험이었으며 앞으로도 예술인과의 사업연계가 지속되기를 희망 함.

| 단체사진 |



하늘농부

| 기관소개 |

하늘농부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오창 지역에서 유기농을 실천하고 계시는 농민분들과 농민단체 실무자 출신이 함께 모여서 유기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고자 시작한 기업입니다.

저희 영농조합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 농민들이 유기농법으로 안정적인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약재배로 지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잘 연결하여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늘농부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 간의 작은 음악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농민 생산자들과 문화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예술인소개 |



리더예술인
이창수 (미술)



참여예술인
송선영 (미술)



참여예술인
임남규 (문학·국악)



참여예술인
심은지 (음악)



참여예술인
추연신 (미술)

| 협업활동 프로젝트 기획의도 |

직원들을 위한 문화적인 활동과 사업적 문제들을 예술로써 해결하기를 위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예술문화참여로 인한 시간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된 주제를 만들어서 관계개선 및 원활한 업무협업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공연을 관람하면서 서로 공동된 경험을 통한 기업 공동체로써의 의식을 심어 업무소통에 있어 차별 없이 서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예술문화가 잘 연결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시각적 예술에 있어 기업의 상품 포장에 대한 의견을 지역 예술작가들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장디자인에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특화에 의미부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과정 |

5월

▶▶ 하늘농부 알아보기의 시간을 가졌다.

늦게 사업이 시작되어서 작가 별 특색을 미리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30시간 채우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작가들 간 활동 내용에 대한 분석 없이 12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난 뒤라 더 그랬던 것 같다.

작가 별 유기농과 협동 농장 등에 대해 각자 조사를 바탕으로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했으나 딱히 하나로 모여진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될 것 같았다. 화투장 만들기...

그래도 모두가 재미있는 일을 과감하게 하면 그것이 더 예술가다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막판에 3명의 작가들이 만나 결정된 내용이었지만 이런 결정을 다른 작가들에게도 전달하였고 기관에도 전달하였다. 직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고민을 했으며 고민의 끝에는 대표께서 사행성 화투장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달하였으나 자신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이를 보다 재미있게 활용하여 유머가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 보려 할 것이다.

- 작가 별 주제 의식이 다르므로 작가 별 활동 계획과 방법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 각자 준비한 유기농, 영농과 예술에 대한 연결 점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짐
- 농장과 포장 및 다양한 과정에서 예술의 참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

6월

▶▶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에 예술과 연결성 찾기를 위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놀이가 가능한 하늘농부 프로그램 도구 제작이었다. 일명 화투인데 청주에서 만든 다른 화투세트도 진행하다가 알게 되었지만 거기에 비해 우리가 만든 것이 훨씬 우월했다.

그 외의 요약하면 계획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유기농을 활용한 놀이 물품 제작
- 화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유기농 그림으로 만든 화투 제작
- 화투 도안부터 놀이의 방법을 만들
- 유기농 화투를 활용한 농장 연결 축제 제안

농업은 매번 바뀔 것이 아니라 농작물에 따라 시간과 파종시기에 따라 바뀜이 결정된다. 농촌에서 많은 놀이로 사용되는 화투는 일본식 그림이 그려진 놀이 카드지만 유기농 야채와 각기 파종 시기나 수확시기를 고려한 12가지 유기농과 관련된 도안을 활용하여 유기농 화투를 만들려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농 화투로 협력농장에 '하늘농원배' 유기농 화투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농장 간 친목의 방법을 찾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7월

▶ 여러 논의 끝에 하늘농부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적 체험 제공을 하려 했다. 하늘농부는 여러 유기농 농산물을 하늘농부에서 소분하여 포장하는 것이 주된 노동의 방법이므로 여기에서 유기농을 직접 기른대거나 유기농법 활동은 예술가에게나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초기 때 이야기한 여러 이야기 중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 가능한 주제로 화장실 개선을 시도하기로 했다. 다양한 장르의 시도를 화장실 에다 직접 시연을 하고 이를 이용하는 하늘농부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만 해결하는 곳으로 간이 화장실이다. 간이 화장실도 예술가의 손길이 거치면 보다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용의 발생이 될 것이며 이런 비용의 정도에 따라 보다 나은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늘농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대표와 잘 상의 후 화장실 개선 사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비용 제공이 어려우면 가능한 방법의 설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8월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

▶ 여러 논의 끝에 하늘농부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적 체험 제공을 하려 했다. 하늘농부는 여러 유기농 농산물을 하늘농부에서 소분하여 포장하는 것이 주된 노동의 방법이므로 여기에서 유기농을 직접 기른대거나 유기농법 활동은 예술가에게나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초기 때 이야기한 여러 이야기 중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 가능한 주제로 화장실 개선을 시도하기로 했다. 다양한 장르의 시도를 화장실에 직접 시연을 하고 이를 이용하는 하늘농부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만 해결하는 곳으로 간이 화장실이다. 간이 화장실도 예술가의 손길이 거치면 보다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용의 발생이 될 것이며 이런 비용의 정도에 따라 보다 나은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늘농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대표와 잘 상의 후 화장실 개선 사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만일 비용 제공이 어려우면 가능한 방법의 설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8월의 활동을 진행했다.

9월

▶ 애초의 계획은 이랬다. 3개 칸으로 된 화장실의 개선을 위해 주변 정리와 진입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므로 진입 흙길에 대한 제초 작업과 바닥석 까는 작업을 먼저 하려 했다. 재 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깔거나 아니면 천연 바닥 아자매트등을 고민하는 중인데 비가 올 때 불편함을 이야기하므로 흙을 밟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폐벽돌은 겨울 초입이 되어야 무상 배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근처 구청에 신청을 해두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결 못할 것 같다.

수도 동파를 위한 거적은 걷어내고 화장실 외부의 청소와 도색을 했다. 하늘농부의 이미지를 살려 하늘의 모습으로 화장실 외벽을 꾸몄다.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초벌 도색 밖에 못 하고 10월에야 다 도색 가능할 것 같다.

내부는 유리구슬이 매달린 부착식 벽등을 만들 것이고 센서로 사람이 감지되면 불이 켜짐과 동시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화장실로 꾸몄다. 실크 벽지로 고품격 장소의 느낌을 살리며 바닥은 황금색 페인트로 칠해서 독특한 구조를 제공하며 변기커버 및 기타 소품을 통해 즐거운 공간이 되었다.

- 화장실 내부, 외부 벽등 설치
- 바닥 금색 도포 완성
- 내부 벽 도배
- 외부 벽면 하늘과 구름으로 하늘농부 이미지화 작업진행
- 내부 설치를 마친 뒤 음향 설치와 소품 설치로 편리성을 높임

10월

» 도배를 화장실 내부로 하려 했으나 도배가 불가능한 곳들이 생겨났고 기존 설치물 중에 반드시 화장실 유지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므로 이런 면은 금색 페인트로 도색을 하려 했다. 남성 소변기의 경우도 물이 묻는 부위 말고는 금색으로 칠해서 전반적인 통일감을 주려했다.

소품은 상황에 따라 계속 추가될 것인데 기초적인 공사 후 첨가하며 소품은 각자 만들어 배치가 가능하다. 되도록 화장실에 필요로 하는 비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냄새 제거가 가능한 방향제를 고려하고 있다. 만드는 몫 사용자의 요구도 있었는데 핸드폰 거치대나 놋두는 곳이 있었으면 한다고 하여 의견을 고려하려고 하고 기회가 닿으면 이용자 인터뷰를 짧게 하여 더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을 지켜주려 했다. 그러나 잘 안 되어서 못했다.

- 화장실 내부, 외부 벽등 설치
- 바닥 금색 도포 완성
- 내부 벽 도배
- 외부 벽면 하늘과 구름으로 하늘농부 이미지화 작업진행
- 내부 설치를 마친 뒤 음향 설치와 소품 설치로 편리성을 높임

하늘농부의 구성원들이 활용하는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용변 해결의 공간을 넘어서는 문화적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황금 바닥 칠하기



공사



해남농부시장실 외형 완성



내부 문을 연 장면



마음다온 화장실의 풍경



| 예술인소감 |

리더예술인 이창수 💬 작가들이 배려하며 결과물을 다 같이 완성했다. 처음 해보는 것도 많았고 해 본 것도 있었지만 협업이란 말에 걸맞은 활동을 했다. 직접적인 결과물이 나와서 좋았고 처음 해보는 일을 서툴지만 해본 것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참여예술인 송선영 💬 하늘농부 간이화장실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술인들이 다 같이 소통, 화합의 증거로 좋은 결과가 나와 보람 있었다. 예술적 능력과 재능을 기관에 필요한 곳에 행복을 만들어 주는 의지로 예술로를 해서 문화예술 가치를 입증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참여예술인 심은지 💬 처음으로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을 만나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타 분야 예술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참여예술인 임남규 💬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일은 여럿의 협동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차이를 조화하는 것에서 눈에 드는 이미지가 완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번 활동으로 또 한 번 입증되었다는 다름 평가를 주고 싶다. 즐거운 활동으로 기억할 것이다.

참여예술인 추연신 💬 이 활동으로 올 한 해 즐거웠다. 과거에 하던 예술활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아 보람도 있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6개월이 지나가서 그런지 지금은 매우 심심할 지경이다.

| 기관소감 |

지역 예술가분들과 서로 협의하며 진행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업의 결과물로 인해 저희 기업을 방문하는 분들께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술로 사업을 진행해 주신 지역 예술가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단체사진 |



내포긴들영농협동조합

| 기관소개 |

충주시 서쪽 신니면 문송리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내포란 지명과 함께 긴들마을이란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긴들마을은 '팝콘마을'로도 불리며 150여 명의 주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미소진쌀'을 비롯하여 팝콘옥수수, 사과, 버섯 등의 정직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 공동작업으로 수확한 국산 팝콘 옥수수(Non-GMO)를 가공하고 체험까지 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 2개를 가지고 있는 '사과(발효) 팝콘' 만들기 체험을 전국에 하나뿐인 우리 마을의 시그니처 콘텐츠입니다.



[내포긴들마을 체험프로그램]

- | | |
|-------------------------|-------------------------|
| ① 사과팝콘만들기 | ④ 놀이체험 : 전래놀이, 두부, 떡메치기 |
| ② 식체험 : 사과피자, 목련꽃차, 쌀전병 | ⑤ 수확체험 : 사과, 쌀채소 |
| ③ 공예체험 : 폴리머클레이, 커피박점토 | |

| 예술인소개 |



리더예술인
김상현 (음악)



참여예술인
김미아 (음악)



참여예술인
김준아 (음악)



참여예술인
이은주 (음악)



참여예술인
장미경 (음악)

| 협업활동 프로젝트 기획의도 |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며 농촌 주민들의 예술 혜택이라는 것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이유 때문에 도시민들과는 많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활동에 차이가 나는 것에 고민을 하였고, 현재 체험 소득분야로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긴들 체험마을에서 잘 갖춰진 시설과 마을 경과를 활용하여 교육 복지 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예술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및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며, 농촌의 예술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보였습니다. 사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예술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마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내 포진들 영농조합 활동키워드

1. 농촌체험 & 작은 음악회
2. 도레미 놀이터
3. 체험 키트 연구개발

● 기획의도

- '예술로' 참여예술인 5인과 함께하는 농촌 작은 음악회
- 농촌 체험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내포진들마을의 계절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음악회

● 활동과정

- 프로그램 회의 | 농촌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나 계절의 변화를 고려한 곡 선정
- 악보 및 음원 준비 | 개인연습, 전체연습, 무대 리허설 진행

| 과정 |

5월

>> 2023 충북 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참석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안내, 참여예술인 및 기업 기관 매칭, 각 기관별 미팅 및 일정 논의

>> 5월 활동 계획 수립

- 내포진들마을 담당자 윤용철 사무국장과 협업 일정 조율
- 마을 사업에 관한 자료조사 진행
- 내포진들영농조합에 관련 인터넷 자료 리서치, 예술로 사업을 통해 기관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할지 연구
- 내포진들마을에 방문하여 마을의 주요 포인트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의 예술로 계획을 구상
- 긴들마을을 방문하는 6 가족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작은 음악회를 3회 (6월, 7월, 9월) 진행
- 첫 작은 음악회는 6월 4일 일요일 저녁 7시에 40~50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함.
- 내포진들마을 작은 음악회 관련 회의, 음악회 프로그램에 필요한 악보 공유 및 연습 진행
- 악기별 솔로곡과 현악앙상블, 성악앙상블 프로그램 계획
- 현악앙상블 1곡, 성악앙상블 2곡 그리고 각 예술인들이 솔로곡 1곡을 준비하기로 함.
- 성악앙상블 곡은 MR로 반주, 모든 예술인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2곡으로 정함

| 과정 |

5월

»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

- | | |
|------------|-------------------------|
| 1. 꽃날 | 5. I could have tonight |
| 2. History | 6.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 3. 고향의 봄 | 7. 디즈니메들리 all part |
| 4. 자바자이브 | 8. 붉은 노을 all part (앙코르) |

6월

» 6월 작은 음악회 준비

- | | |
|-----------------------------|--------------------|
| 리허설 :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 | 건반 / 김상현 담당 |
| 의상 : 자유복 | 성악파트 MR준비 / 김미아 담당 |
| 준비사항 : 이동용 앰프, 마이크 / 김준아 담당 | |

» 6월 작은 음악회 실시 | 연주 프로그램

- | | |
|---------------------------------|-------------------------|
| 1. 꽃날 vn 김상현 bass 김준아 piano 장미경 | 5. I could sop 이은주 |
| 2. History bass. Piano | 6.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
| 3. 고향의 봄 vn. Piano | 7. 디즈니메들리 all part |
| 4. 자바자이브 sop 김미아 | 8. 붉은 노을 all part (앙코르) |

» 6월 작은 음악회 실행 후 평가 | 체험객의 만족도 후기 대체적으로 좋았음

8월 작은 음악회 진행 중 야외음악회가 어려울 경우 실내 연주 고려

8월 음악회 장소 : 허브센터 예정

긴들 동요제

참여대상 : 내포긴들마을의 아동 또는 충주 도내 아동 대상

동요제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회의

23년 동요제의 경우 제1회 주최에 의미를 두기로 함

7월 중 구체적인 계획 구성

» 내포긴들마을 음악회 (6/27일) 관련 행사 연주 연습 및 참여

바이올린 : 김상현 피아노 : 장미경 듀오로 구성하여 준비

» 연주 프로그램

바이올린 : 김상현, 피아노 : 장미경

- 꽃날 (드라마 ost 중에서)

- 차르다시

- 고향의 봄

- 사랑은 늘 도망가 (드라마 ost 중에서)

7월

>> 내포긴들마을 체험키트 관련 회의 진행

- ▶ 체험마을의 특색을 살린 체험키트, 재료고민
- ▶ 자연물,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자연친화적 재료
- ▶ 예술 관련 체험내용이 담긴 키트에 대한 고민
- ▶ 참고사항 : 22년도 예술로 팀의 체험키트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

>> 8월, 9월 작은 음악회에 관한 회의 진행

- ▶ 8월 작은 음악회 예정일 : 8 / 12 (토) 7시 30분 장소-허브센터 강당
- ▶ 대상 : 체험객 및 내포긴들마을 주민 참여형 음악회 형태로 진행 (관객 50여 명)
- ▶ 곡목 : 나는 문어, 사랑의 인사, 한국가곡, 동요 메들리, 대중적인 클래식 등으로 선곡
- ▶ 주제 : '농촌'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곡

>> 9월 작은 음악회 일정 계획

- ▶ 9월 작은 음악회 예정일 : 9/8 (금) 7시 30분
- 8월 작은 음악회 곡목선정

>> 연주곡목

- ▶ 동요 메들리 all part
- ▶ 꽃구름 속에 sop 이은주
- ▶ 새타령 sop 김미아
- ▶ 아름다운 나라 all part
- ▶ 꽃날 vn 김상현 bass 김준아 piano 장미경
- ▶ 광화문 연가 bass 김준아 piano 장미경
- ▶ 붉은 노을 all part
- ▶ 찐이야 all part (+윤용철 사무국장)
- ▶ 고향의 봄 vn 김상현 piano 장미경
- ▶ 내 사랑 내 곁에 vn 김상현 piano 장미경

>> 8월 작은 음악회 연습

- ▶ 악기별 파트연습
- ▶ 악기+성악 합주 연주

8월

>> 8월 작은 음악회 진행 | 프로그램

- 1) 미뉴에트 - 피아노,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 2) 꽃날 - 피아노,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 3) 꽃구름 속에 - 성악
- 4) 새타령 - 성악
- 5) 광화문 연가 -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 6) 내 사랑 내 곁에 - 피아노, 바이올린
- 7) 동요 메들리 - 전체 파트
- 8) 붉은 노을 - 전체 파트
양코르곡) 찐이야

» 체험활동 관련 악기키트 자료조사

- 내 포진들 마을 체험객들을 위한 체험악기 관련 자료조사
- 악기키트 종류 파악
- 악기체험키트 아이디어 회의
- 아동 체험객 대상 다양한 재료의 체험악기
- 내포진들마을의 특징이 반영된 프로그램, 다양한 재료
- 내포진들마을의 농작물을 이용한 악기체험키트 프로그램 구상
- 체험 타악기 관련 자료조사 및 회의
- 내포진들마을 체험악기에 대한 회의 진행
- 체험활동 관련 타악기 자료 조사
- 탄소종립의 악기 소품 자료 조사
- 체험키트에 관한 회의, 음악회 관련곡 연습
- 내포진들마을 체험키트에 관한 아이디어 회의
- 체험키트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 9월 작은 음악회 연주곡 파트연습

-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에 관한 회의, 체험키트에 관한 회의

» 9월 작은 음악회에는 8월 음악회에서 부족했던 아동들을 위한 음악회 프로그램 고려

- 내포진들마을 체험키트에 대한 자료 조사
- 체험악기를 통해 마을과 예술활동을 함께 경험

9월

» 작은 음악회에 관한 논의

- 지난 음악회에 참석한 체험객들의 반응 및 선호도 조사
-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호평

» 9월 작은 음악회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일정 조율함

- 작은 음악회에 관한 회의 및 프로그램 선정
-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 선정
- 악기파트 (바이올린, 피아노, 베이스) 편곡 및 수정함
- 악기파트와 성악 앙상블곡 선정
- 악기파트별 선정곡들과 성악 앙상블곡 추가 연습
- 추가된 성악곡은 MR로 진행하기로 함 (MR은 김미아 예술인 담당)
- 악기파트 연주곡 추가함 (밤편지 - 바이올린, 베이스, 피아노 트리오 진행)
(내 사랑 내 고향, - 바이올린 솔로, 광화문 연가 - 베이스 솔로)
- 연령대가 어린 체험객들을 고려한 동요 연주곡 추가하기로 함

- 성악 앙상블 곡 추가 연습
- 악기파트 솔로곡 및 성악 앙상블 곡 연습
-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동요 메들리 및 연주곡(수박파티, 멧쟁이 토마토 등) 추가 연습 진행
- 리허설 4시부터 진행
- 작은 음악회 시작 7시 30분 / 허브센터 강당
- 음향체크 (김준아 예술인 담당)
- 체험객들의 연령대를 고려한 음악회 프로그램 진행
- 앙코르곡(2곡 정도) 등은 참여 체험객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음악회로 진행
- 내포긴들마을 먼민 대상 음악회에 대한 회의
- 음악회 일정 조율
- 야외공연 계획 시 필요사항에 관한 회의 (장소 및 음향 등에 관한 회의)
- 음악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체 예술인 참여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10월 예술로 활동의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논의

- 10월 중 진행 계획이던 먼민 음악회에 대한 변경사항 논의
- 음악회를 대신할 대체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진행
-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관련 악기 키트 및 체험 키트에 대한 논의
- 내포긴들마을의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키트에 대한 연구 진행
- 탄소중립 재료들을 바탕으로 체험악기 탐색/ 나무 마라카스, 친환경 원목 블루투스 등
- 친환경 재료나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체험악기에 대한 연구
- 음표, 심표, 음악말 등을 활용한 키트체험 및 연구
- 동요 관련 수박모자 만들기 체험키트 만들기
- 재활용품을 활용한 체험키트 만들기

10월

» 성과공유회 준비 관련 회의 진행

- 예술활동 가이드 '도레미 놀이터' 작성에 관한 회의 진행

» 23년도 예술로 활동내용 정리

- 윤용철 사무국장님 참여 / 성과 내용 정리
- 10월 예술로 활동계획 및 일정 수정

» 참여예술인 공연관람

- 충주 참여예술인 공연관람
- 예술로 참여 예술인 및 가족들과 공연관람 및 친목 도모

» 예술활동 가이드에 관한 자료조사 및 연구활동

- 체험활동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활동에 관한 연구 및 회의 진행
- 전통놀이 '웃놀이'를 이용한 예술활동 연구

- 가이드 내용 안에 내포진들마을의 체험요소를 담을 수 있도록 연구

» 예술활동 가이드에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 활동 진행

- 체험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예술활동에 관한 자료 조사
- 활용 가능한 교재 및 교구에 대한 조사
- 농촌마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 고려하여 자료 수집

» 예술체험활동 관련 교재, 교구 연구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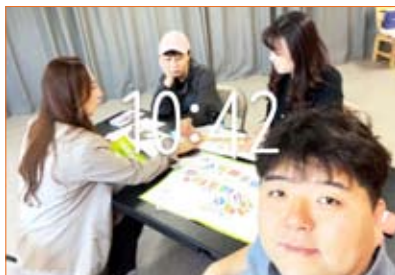
- 여러 가지 예술체험활동 교재, 교구 내용 조사
- 내포진들마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예술활동에 관한 자료 조사 진행
- 사과 따기, 버섯채취 활동 등 내포진들마을의 체험을 나타낸 예술활동 가이드 내용 정리해 포함
- 어린이부터 성인 체험팀이 모두 활용 가능한 예술활동 가이드 연구

» 예술활동 가이드에 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 예술활동 가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음악게임 등 연구 및 자료 조사 진행
- 성과보고회 관련 내용 정리 / 일정 조율

» 23년도 예술로 활동 내용 정리

- 체험악기 연구에 관한 내용 정리함
- 작은 음악회 관련 내용 정리
- 음악회 참여 체험객들의 반응 및 사진내용 등 정리



| 결과 |



| 예술인소감 |

리더예술인 김상현 💬 ‘예술로’ 활동의 시간들은 참여예술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시간과는 달리 서로의 가진 에너지를 나누고 또 다른 아이디어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서로의 예술활동을 바라봐주고 조언하며,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있어 매주 이어지는 모임이 기다려지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23년도 ‘예술로’ 활동이 마무리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 이곳 ‘내포진들마을’에서의 활동은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예술인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해 주신 내포진들영농조합 손병용대표님, 윤용철 사무국장님과 김미아, 김준아, 이은주, 장미경 참여예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예술인 김미아 💬 2023년 예술로 사업은 기존 함께 일했던 예술인들과의 반가운 마음과 새로이 함께하게 된 예술인들과 만나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지난 6개월동안 내포진들마을 체험객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정하고 연습하며 각자 전공은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공통점으로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함께 연주하며 하나의 팀으로 발전해갔다. 음악회를 진행할 때마다 공연장이 아닌 자유로운 환경에서도 클래식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예술을 통해 기관 경영에 도움을 주고 개인적으로 한층 발전하는 시간이었다.

참여예술인 김준아 💬 삶은 예술을 통해 빛나듯, 기업은 예술인 파견을 통해 생기를 찾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예술적 영향력을 끼쳤고, 기업은 기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예술인파견지원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와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되어 기쁘다. 특히, 우리 팀 예술가들과 유대와 연계가 정말 감사하다. 인연을 이어가고 같이 예술을 만들어가고 싶다.

참여예술인 이은주 💬 올해로 3년째 내포진들 영농조합에서 참여예술인으로서 예술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첫해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협업이라는 과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의욕이 앞서기도 했지만, 3년 차 같은 기관에서 활동하다 보니 기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올해는 특히 김상현 리더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참여예술인들이 음악을 전공하여 내포진들마을 체험객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매달 새롭게 준비하고 연주하여 기관과 체험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농촌 마을의 한계에서 벗어나 예술을 통한 마을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의 면모를 보여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예술인 장미경 💬 한 해 동안 다양한 음악분야의 예술가들과 내포긴들영농조합법인에서 함께 예술로 활동을 하며 음악으로 농촌을 찾은 체험객과 관람객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고 음악회를 준비하며 알차고 뿌듯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으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기관소감 |

2023년 예술로 사업을 3년 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훌륭한 예술인들과의 협업으로 기업의 홍보는 물론 문화소외지역인 농촌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분들과 기업 간의 배려와 이해를 통한 협업으로 3년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 단체사진 |



이안테라스

| 기관소개 |

이안테라스는 청주에 위치한 외식복합공간으로 웨딩 카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의 대형 연회장과 4층의 잔디중정, 루프탑 라운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을 위한 작은 축제, 행사 등을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카페의 내벽 공간을 통해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에 방문하시는 고객 및 청주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열고 더 기관의 사업보다 더 많은 분들의 공유공간 공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번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술로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과의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예술을 더 이해하는 자리를 가지며 예술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소개 |



리더예술인
유용성 (음악·국악)



참여예술인
권여진 (미술)



참여예술인
이재윤 (음악)



참여예술인
이옥란 (무용)



참여예술인
한지윤 (미술)

| 협업활동 프로젝트 기획의도 |

그동안 지역 회화작가들과 협업하여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유용성 리더예술인을 만나게 되어 공간의 활용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계기가 생겼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예술향유기회를 만들며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협업 프로젝트가 있다는 이야기에 그동안 이안이 고민하고 있던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안스퀘어는 웨딩, 카페, 레스토랑을 주 사업으로 하는 복합외식공간이지만 넓은 공간을 일반 고객들이 잠시 다녀가는 곳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예술인들과의 접점을 통해 지역사회에 예술향유 기회를 열고 이바지하고자 이번 협업 사업으로 예술에 대해 이해하고 예술인들과 상생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보고자 합니다.

| 과정 |

5월

>> 1주 차 | 오리엔테이션 및 기관 매칭, 팀원 매칭

2주 차 | 기관 방문 협업, 기관의 니즈 파악, 예술가들의 니즈 파악, 모두의 접점과 협업 방향에 대한 논의
재운 예술인 포트폴리오 발표

3주 차 | 기획회의, 자료조사 권여진, 한지운 예술인 포트폴리오 발표

4주 차 | 기획회의, 자료조사, 복합문화공간 사례조사 답사, (문화제조창 방문) 이옥란 예술인 포트폴리오 발표

5주 차 | 기획회의,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회의, 리더예술인 포트폴리오 발표

>> 기관은 복합외식공간으로 운영되며 주말을 중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간의 유휴 시간을 공공성 있는 공간으로써 예술향유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니즈가 있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예술가들의 삶과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확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다.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공연 같은 이벤트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이안테라스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향유를 통해 삶의 귀감이 되고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술인들은 많은 시민들이 진정한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는 협업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기로 했다.

6월

>> 포토존을 활용한 협업활동을 진행

2인 전과 관련된 자료 공유 2차를 진행함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진행함. 디자인 페스티벌에 출품된 전시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작품 전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해짐

우리가 그동안 말해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하는 분위기 즉 협업이 두드러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
다양한 곳즈와 예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누리는 베네프트 관련하여 의견 나눔.

» 텀블러 구매 및 텀블러 가방 만들기 참여자 베네프트

- 1) 커피 한잔 무료
- 2) 해당 텀블러 지참 시 할인진행
- 3) 일정 횟수 커피 할인 쿠폰 증정
- 4) 해당 텀블러 지참 후 커피 구매 시 판매가격의 일정 부분 기부금 적립

» 화분 컵 케이크 구매 및 재생 흙 도자기 만들기 참여자 베네프트

- 1) 베이커리 할인
- 2) 재고 빵 1종 랜덤 무료 제공
- 3) 재고 빵 추가할인
- 4) 기존 할인 정책 추가할인

» 아로마 디퓨저 프로그램 참여자 베네프트

- 1) 해당 레시피 제공 시 참여자 이름이 들어간 제품 출시
- 2) 해당 제품 판매 시 판매금액의 일부분 기부금 적립
- 3) 레시피 제공 베네프트로 일정 개수 커피 무료증정(3~4회)

7월

» 1. 콘서트 및 축제 관련 아이디어 회의

- 콘서트 제목 변경 : 정원산책 ▶ 예술로 거닐다
- 2인전시 제목 변경 : 그림으로 보는 스케치 ▶ 그림으로 보는 예술 스케치* 가제로 변경

2. 콘서트 음악 선정

- 연관 키워드 / 예술 산책, 정원, 자연
- 콘서트 음악 (총 5가지)
 - ①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 피아노 콰르텟 Pf Vn1 Vn2 Vc
 - ② Jardin De Mi Papa(꽃밭에서) / 피아노 콰르텟 Pf Vn1 Vn2 Vc
 - ③ 슈베르트 송어 / 피아노 콰르텟 Pf Vn1 Vn2 Vc
 - ④ 히사이시 조 Summer / 피아노 콰르텟 Pf Vn1 Vn2 Vc
 - ⑤ 멘델스존 봄의 노래 / 피아노 콰르텟 Pf Vn1 Vn2 Vc
- 무용과 어울릴만한 음악
 - 드뷔시 / 달빛

3. 포토존 제작

- 이안테라스 입구 쪽 포토존 제작 아이디어 전달
- 드로잉 캔버스로 포토존 제작하기 (행잉 드로잉 작품으로 전시)

4. 무용 공연 진행 (이옥란 선생님)

- 음악을 선정하여 음악 공연 진행 후, 중간에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정

5. 작가와의 대담 진행 (유용성 선생님)

- 제목 구상 및 대담 내용은 추후 구상하여 진행

6. “예술을 거닐다” 콘서트 순서 정리 *날짜는 추후 기관과 협의 후 진행

- ❶ 전시 오픈에 맞춰서 콘서트 진행. / 11시 오픈 후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
- ❷ 음악 공연 진행. / 전시 오픈 30분 뒤 진행*
- ❸ 무용 공연이 음악 공연 중간에 진행되도록 할 것
- ❹ 작가와의 대담

- 주중 진행 외에 주말에 진행가능하도록 진행하기

- 카페 공간에서 음악과 무용, 대담이 함께 진행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7. 폐현수막 길 진행

- 이벤트성으로 하루만 진행함
- 미리 폐현수막을 받아서 젓소칠 등 사전 준비하기
- 오일파스텔 구매 부탁하여 드로잉 진행하도록 이벤트 진행
- 체험은 아이들이 직접 하도록 진행함

8. 구역 선정 및 내용 정리

- 각자 어디에서 진행할지 구역을 선정하고, 전체적인 동선을 체크함
- 구역을 지정하여 구역마다 산책하는 동작을 지정하여 일정 구역에서만 일정 동작을 표현하는 아이디어를 공유함

9. 수어 동영상 콘티 선정

- 이재윤, 한지운, 권여진 선생님 콘티 중, *이재운 선생님 콘티로 선정함
- 마지막 부분에 “이안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용을 직원들이 함께 수어로 하는 것을 촬영

10. 기획안 전달

- 이안테라스에서 진행하면 좋을 원데이 클래스 기획안 및 원데이 클래스에 적용하면 좋을 굿즈 및 베네핏 정리하여 전달할 예정
- 최종 정리는 콘서트 기획안과 함께 10월 말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의견 제시

8월

>> 1. 콘서트 실행 계획안 기관 전달 및 세부 내용 공유

- 콘서트 실행 날짜 조율 및 기관 협의
- 폐현수막을 활용한 드로잉 이벤트 날짜 지정 및 배치 아이디어 회의 진행
- 콘서트 세부 내용 협의 및 내용 확정

2인 전시 관련 견적서 전달 및 전시 일정 협의

- 전시 날짜 확정 (10월 9일 ~ 10월 29일 약 20일간 진행)
- 전시 관련 재료비 견적서 전달 및 작품 용달 관련 내용 협의
- 전시 장소 확정 및 작품 제작 진행

3. 포토존 설치 관련 내용 협의

- 카페 내에 동선에 거슬리지 않는 부분을 위하여 작품 설치 진행
- 10월 8일 8시 이후에 포토존 설치를 진행

4. 수어 동영상 예제 제작 및 기관 전달

- 수어 동영상 예제 대본 정리 및 아이디어 정리
- 수어 동영상 촬영 및 예제 기관 전달 예정

9월

>> 실행 중인 프로젝트 이후의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

- 원데이 클래스 기획안 정리 1
-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안테라스 내에서 진행될 원데이 클래스 종류를 추합함
- 총 4가지 기획안을 선정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함
- 이안테라스가 베이커리 카페라는 점을 이용한 원데이 클래스 종류

1. 보타니컬 판화 원데이 클래스

2. 재생 화분 컵 그림 그리기 원데이 클래스

3. 커피 원두 가루를 활용한 주방 비누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카페에서 사용한 원두 가루를 사용하여 주방용 비누로 재탄생시키기)

4. 자개 텀블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 이안, 예술로 거닐다 예술로 꽃길 만들기 프로젝트 사전준비 협업

- 페현수막에 젓소칠 밑작업
- 예술로 꽃길 만들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최종 정리 및 관련 회의 진행
- 원데이 클래스 마지막 기획안 '자개 텀블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는 10월에 정리, 기존 정리한 기획안들과 합쳐 기관에 전달하기로 결정
- 이안테라스 기관 담당자 이준우 본부장님과 예술인들이 모여 앞으로 진행될 '이안, 예술로 거닐다'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짐
- 기존 진행된 장소에서 벗어나 식사를 함께하며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나눔
- 본부장님의 예술적 생각과 시야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인지를 다시금 이야기하며 서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맺는 의지를 다짐

10월

>> 10월은 이안테라스 예술로 팀의 협업 결과인 이안, 예술로 거닐다를 발표하는 달이었다.

이안테라스를 예술 숲으로 상정하여 전시와 무용 연주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행사로 기획하였고 10월 9일 총체적인 협업발표와 29일까지 기간 동안 전시를 진행하였다. 시각작가인 한지운 작가, 권여진 작가는 각각의 작업스타일로 작업하였고 한지운예술인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살아있음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꽃이 지는 이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진행하였고 권여진 작가는 과도한 도시화 속에서 사라져 가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제로 자전거를 타면서 만나게 된 개구리를 보며 느낀 감정을 주제로 한 작품 랩타일 파노라마를 선보였다. 이옥란 예술인은 본인의 삶이 인생의 가을쯤 와있는 감정을 현대무용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그 가을 여행길에서 라는 제목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재운 예술인은 4인조 앙상블로 사계절을 표현하고자 계절을 주제로 한 레퍼토리로 클래식 앙상블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안테라스가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술가와 함께 하는 원데이클래스 기획안을 전달하였고 나아가 공감과 상생을 위한 아이디어로 수어를 통한 이안의 슬로건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아이디어를 정리하여 공유하였다.



| 결과 |

현대무용 퍼포먼스, 클래식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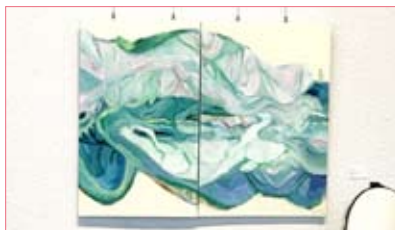
랩타일파노라마 작품 포토존 및 스탬프 체험



꽃길프로젝트



작품 전시





예술가와의 대담, 프로젝트 포스터



| 예술인소감 |

리더예술인 유용성 💬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팀워크가 잘 맞는 예술로 팀과 기관의 만남이었다. 처음 시작은 기관의 니즈와 그에 걸맞은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연계하는 부분으로 맞춰졌던 초점이 협업을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일들이 툭툭 터져 나오며 각 장르와 이안의 협업, 그리고 공공예술로 이곳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과의 향유를 고민하여 다양한 기획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보다 참여예술인 선생님들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함께 모이면 더 큰 시너지가 나와 정말 즐겁게 일하는 시간이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이 팀으로 올해 세운 기획안을 하나씩 실행하며 즐거운 협업을 이어 나가보고 싶다.

참여예술인 권여진 💬 이안테라스 ‘이안, 예술로 거닐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협업 활동을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와 타 분야에서의 활동하고 계신 예술가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2023 예술로’라는 프로그램에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활동에서 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던 예술인들과 다시 협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예술인 이옥란 💬 올해 예술로 사업은 첫날 참여예술인의 만남에서 어색하고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첫 만남 때 느껴졌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서로서로 존중해 주면서, 협업이 잘 이루어져 프로젝트가 한 방향으로 혼선 없이 매우 잘 진행되었다. 기관의 높은 관심도와 지속적인 협조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안이 계속 연속 사업으로 참여한다면 올해 기획안으로 남긴 원데이 클래스와 수어 홍보 동영상을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함께한 협업 예술인들과의 합이 좋은 한 해였다.

참여예술인 이재운 💬 이안테라스라는 공간에 예술가들이 직접 예술의 색채를 입혀 공간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뜻깊은 예술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분석하고 특징을 뽑아내어 이를 바탕으로 예술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기획된 “이안, 예술로 거닐다”[첫 번째 프로젝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이 갖는 사회적 역할이 보다 다양해지고, 가치가 상승된 것 같아 뜻깊었습니다. 더구나 모든 예술인들이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같이 이룬 성과라서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음 연도 예술로 활동에서도 다시 만나 즐겁고 유의미한 예술로 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참여예술인 한지운 💬 ‘이안테라스’는 다양한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기관이었고 그 모든 시도는 어떤 기준 안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예술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을 ‘불특정다수’, ‘일반 대중’이었기에 더 의미가 있었던 협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문화를 향유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예술적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과 가치 있는 행사를 치러 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들에 감사하고, 개인 작업에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쁜 한 해였습니다.

| 기관소감 |

예술에 대해 더 가까이 다가가 본질적인 예술의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시와 무용퍼포먼스 공연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처음이었고 이안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정에서 함께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꽃길 프로젝트를 보며 이안테라스가 복합문화공간으로써 해 나갈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 단체사진 |



청주국제에코복합플렉스

| 기관소개 |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문암생태공원에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청주시가 건립한 공공시설로 2016년 개관하였으며 지금까지 비영리법인 (사)풀곰환경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음.

현재 7명이 근무중이며 시민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30여명의 강사가 함께 활동 중임.

규모는 2개동으로 1개동은 교육을 중심으로하는 환경센터, 나머지는 숙박을 할수있는 연수동으로 구성되어있음.

2023년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생태환경체험교육, 초록마을사업, 환경교육 활성화 협력 활동이 계획되어있음.



| 예술인소개 |



리더예술인
서일도 (국악)



참여예술인
김현서 (문학)



참여예술인
박춘성 (미술)



참여예술인
정근형 (음악)



참여예술인
정의 (미술)

| 협업활동 프로젝트 기획의도 |

청주국제에코คอม플렉스는 옛 쓰레기매립장 부지 위에 조성된 문암생태공원 안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무심천과 미호강이 만나는 까치내가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쉬고 놀기 위해, 봄가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야외학습을 위해 찾아오는 청주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주로 주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 주말 가족프로그램 ‘자연아 놀자’, ‘에코자연탐방’, ‘풀꿈나무공방’ 등 생태환경 체험교육, 환경강사 양성 및 교재교구 개발 등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기후변화 대응 초록마을사업 및 녹색도시 만들기 협력활동 등을 펼치며 지구 환경 보전과 생명문화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파견 예술인들께서는 청주국제에코คอม플렉스가 어떤 기관인지 무엇을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 듣고 예술인들 스스로 환경 관련 공부도 하셔서 탄생한 캐릭터가 미호종개와 친구들입니다. 예술적 감각이 전무한 저희는 이런 캐릭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지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6개월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탄생한 미호종개와 친구들은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이야기의 도입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미호종개와 친구들은 드디어 놀이를 진행하는 캐릭터로 또는 멸종되어 가는 생물을 살리는 캐릭터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예술인 분들이 계속 함께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해 이야기 서사와 함께 캐릭터가 탄생했고, 두 번째 해는 캐릭터의 다양한 변주와 확장을 했다면 이제는 미호종개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에코คอม플렉스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도 녹이고 싶고 건물 구석구석 천장, 바닥, 벽, 입구 등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 과정 |

5월

» 5월 12일 | 참여 예술인 및 기관 매칭, 향후 일정 논의

(기관 : 청주국제에코คอม플렉스 / 참여예술인 : 김현서 (문학), 박춘성 (미술), 정근형 (음악), 정의 (미술))

5월 15일 | 작가 별 작품 활동 소개

(김현서 / 동요작사, 동화책, 소설 등) (박춘성 / 단청, 드로잉, 캘리그래피, 수채화, 조형 등 작업)

(정근형 / 재즈 기타리스트, 녹음실 운영, 음반 제작 및 프로듀싱, 작편곡가능) (정의 / 조형예술, 무미 아트 센터 운영, 라이트 아트 등)

5월 19일 | 청주국제에코คอม플렉스 기관 담당자 간담회 및 지난 성과물 살펴보기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기관의 장소, 기관 이 추구하는 사업 방향의 이해)

5월 26일 | 소유공간에서 아이디어 회의 (리사이클을 중심으로 진정된 에코 작품에 관한 이해)

6월

▶ 6월 사업은 기관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의 아웃라인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는 2016년에 설립한 환경교육기관으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기관으로 중국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술인 파견사업은 3년 차 마지막해를 보내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미호종개를 바탕으로 한 게임판, 배지, 캐릭터북, 조형물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배지 제작을 위한 편당사업은 기관과 예술인 모두 만족한 사업이었고 올해는 음악전공 예술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관에서는 미호종개 캐릭터송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앞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게 입간판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하다 정크 아트 작가들과 접촉하여 조형물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입구에 전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서 남녀노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만 주로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던 중 아이들 그림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있어 사용방법을 담당자에게 교육시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미호종개 캐릭터송은 국악버전, 창작버전, 개사버전등을 고민하였습니다.

7월

▶ 정익 선생님의 태국 교류 작품 (THE RIVER TO THE LAKE)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8m 조형물 제작, 사용하고 남은 실크로 접어서 물고기 만들기, 종이로 물고기 만들기, 호텔에서 환경운동 일환으로 매일 하는 빨래, 2일 간격 빨래, 3일 간격 빨래, 4일 간격 빨래 등 옷이나 침구류 등의 빨래를 선별하여 빨래양을 줄인다고 합니다.

◆정순철 동요 중 적합한 곡 리스트 상의하기 코끼리코, 애 보는 아기, 암탉 세 마리, 체신부와 나뭇잎 중에서 코끼리코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정순철 작가의 업적과 위상정립 및 생애복원 활동을 육천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충북학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정순철 작가의 작품을 적극 활용하여 널리 알려주기를 희망하였고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악동요 남생아 놀아라, 소금장수, 강강술래 중 남생아 놀아라가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리듬으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의 미호종개송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남생아 놀아라를 개사하여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근형 작가 코끼리코 편곡 결정, 국악동요 남생아 놀아라 김현서 작가가 개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 브리핑 담당 및 내용

1. 정순철 작가 소개 박춘성 작가 브리핑
2. 선정 동요 리서치 과정 소개, 남생아 놀아라, 코끼리코 선정 결과 서일도 작가 브리핑
3. 편곡 방향 정근형 작가 브리핑
4. 개사 및 작사 방향 김현서 작가 브리핑
5. 간판 관련 정크아트 정익 작가 브리핑

8월

» 8월은 정순철 동요 작곡가의 삶과 그의 음악세계를 고찰하여 보고 편곡이나 작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의 작가님께서 정크아트 작가님 섭외와 간판 구조물 재료와 가격을 알아봐 주셨고 미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앱 소개와 사용 방법에 대하여 전수해 주셨습니다. 서일도 작가님은 박팔괘가야금병창단 정기연주회가 있었고 국악공연 시 예고 활동과 예고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특히 국악공연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통음악, 퓨전음악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예고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작가들과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교환하였습니다.

정근형 작가님은 정순철 작가님의 작품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편곡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치셨고 김현서 작가님은 예고를 실천할 수 있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사를 쓰고 싶고 후크송 외에도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2절 3절까지 스토리를 연결해서 가사를 쓰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춘성 작가님은 영상제작 시 배경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 그림,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9월

» 김현서 작가가 쓴 가사와 정근형 작가가 만든 편곡을 들으며 수완 보완하였습니다. 레게리듬으로 편곡한 정순철 곡 코끼리코와 국악 동요 남생아 놀아라를 기관 담당자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기관에서는 가사와 음악을 따로 들으니 잘 와닿지 않는다며 가능한 가이드 녹음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AR, MR 두 가지 모두 제작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춘성 작가가 초안으로 잡은 미호종개송 영상 이미지 배경은 레게리듬과 어울리지 않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참고하여 영상 배경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남생아 놀아라, 코끼리코 1차 완성본 공유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대상으로 노래를 녹음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기관과 협의결과 1회성 교육이 주를 이루는 터라 교육생을 섭외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컬로 선별하여 녹음까지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춘성 작가님은 음악 애니메이션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영상 작업은 음악의 분위기와 영상이 맞지 않았으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드백 받아서 10월에 완성 예정

»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를 표현할 수 있는 미호종개송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편곡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가사는 김현서 작가님이 작사하면서 사투리 버전, 표준어 버전으로 써주셨고 국악동요 '남생이 놀아라'. 정순철 작가의 동요 '코끼리코'를 다양한 리듬으로 편곡하고 MR도 제작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춘성 작가님은 코끼리코 편곡 버전의 동영상 배경을 제작하여 노래와 합하니 너무나 아름다운 동영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생이 놀아라 편곡 버전은 음원으로만 제작하였는데 서일도 작가의 녹음, 우리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직원 자녀들의 녹음으로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녹음하는 리코딩 과정에서 노래를 배우고 녹음하는 과정을 몹시 즐거워하였고 완성된 음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매우 흥미로워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가르치는 직업, 리코딩을 하고 작곡을 하는 작업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정의 작가님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건물 다리에 미호종개 캐릭터 조형물의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기관에서 셀프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오래 알뜰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서 작가 - 작사

- (표준어 ver) 개구쟁이 미호종개 :
나는야 꿈많은 개구쟁이 미호종개 반짝반짝 별빛까 햇님일까 두
동심 종개 종개 나는야 미호종개
- (사투리 ver) 영실영실 미호종개 :
미호야 미호야 살랑살랑이 노는거 찰방찰방 노는거 은빛모래
여우네 뽀주 뽀주 해엄쳐요 미호종개
- 미호종개:
미호강 앞은 물속에 누가 살까 궁금해 아와 알겠다 미호종개 반
거주자 가보자 미호종개야 어딴니? 앙금앙금 나와봐 까르르 웃
는 미호종개 웃음소리 들어보자

청주 국제 에코 콤플렉스 다리 난관 조형물 제작 진행 중



장래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와 같이 움직이는 형식으로 조형물 제작후 1년후 일몰까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정동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위해 조형물 제작이 조형물 제작 가능하게 제작 함.



| 결과 |

정근형 작가 - 악보제작, 편곡 및 녹음 작업

계구령이 미호종개_MIX	영실당실 미호종개야_MIX
계구령이 미호종개야_서일도	당실당실 미호종개야_서일도
계구령이 미호종개_아이들	당실당실 미호종개야_아이들
미호종개	코끼리코_inst
계구령이 미호종개, 당실당실 미호종개야inst	

계구령이 미호종개

계구령이 미호종개_MIX

계구령이 미호종개야_서일도

계구령이 미호종개_아이들

당실당실 미호종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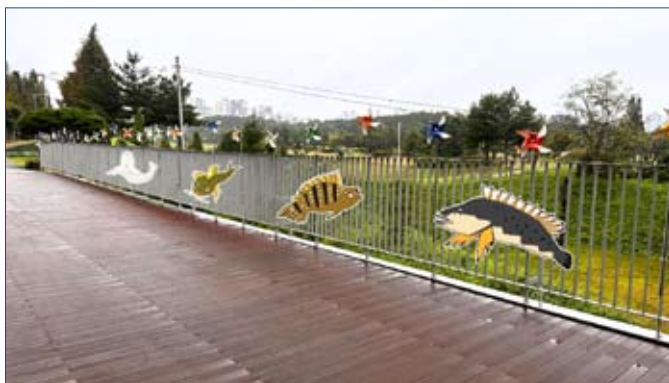
당실당실 미호종개_MIX

당실당실 미호종개야_서일도

당실당실 미호종개_아이들

미호종개

미호종개 inst



| 예술인소감 |

리더예술인 서일도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기관과 각양각색의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만나 공동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새로운 결과물이 생겨나고 변화될 때마다 신기하고 재미있고 보람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로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작가님들을 만나 같이 작업해 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연을 작품세계에서 함께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예술로 사업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예술인 김현서 💬 6개월의 짧은 예술로 사업이 끝났다. 함께 일한 다섯 명의 작가가 보여준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차와 온도차는 특이하고 재미있었고 낯선 경험이었다. 걸어보지 않던 길을 걸으며 예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많이 접했다. 그 풍경과 나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고, 내 속의 다른 에너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함께 했던 작가들에게 고맙다.

참여예술인 박춘성 💬 여러 예술인을 만나 새로운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술 활동이 사회에 쓸모를 더하고 기관 곳곳에 예술이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서로 알아가고 협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과 색다른 시야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참여예술인 정근형 💬 예술가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와의 만남에서 나온 결과물은 정말 부듯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문 분야에서 온 참여자들이 협업하면서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품을 창조했고, 이는 예술과 교육이 얼마나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창의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주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여예술인 정 의 💬 주변의 작가들로부터 예술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은 것을 사전 학습을 하였습니다. 예술로 사업의 취지와 여기서 기관과 작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현장의 경험에 따라 생각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업을 처음 경험한 사람으로 편협된 사고로 각자의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고 다양함을 존중해 주는 새로운 작가분들과 만남이 좋았습니다.

| 기관소감 |

먼저 23년 기관을 위해 6개월간 열심히 달려와주신 다섯 분의 예술인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관과 환경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개인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내주시고 지금도 기꺼이 도움을 주시는 예술인 분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21년, 22년에 이어 마지막 3년 차를 맞이하여 종료되는 것이 대단히 아쉽지만 그만큼 훌륭한 결과물로 인해 부듯함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기 전 기관의 이미지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경직된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뒤 해를 거듭해갈수록 기관의 마스코트가 탄생하고, 포토존이 설치되고, 교구가 만들어지고, 또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생기는 등의 과정으로 인해 지금의 생기 있고 친근한 모습의 기관으로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

예술로 활동이 저희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예술인의 지혜가 모여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교육에 활용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과정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관의 예술로 사업 참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은 물론 그 이상의 가치를 선물해 주신 예술인 분들과 사업을 무탈하게 마치는데 애써주신 사업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단체사진 |



2023 충북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 결과 자료집**



28480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충북문화예술인회관 4층, 우암동)

T. 043-222-5316 F. 043-222-5310 www.cbfc.or.kr